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2022  
부산 학  
기특종서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 발간사

부산학은 부산의 사람, 공간, 역사, 정체성 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부산학은 부산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부산사람들의 고유한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과 미래상을 발견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학문적 지향 및 실천 활동을 포함합니다.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는 2003년부터 부산학 연구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행을 위해 설립된 조직입니다. 정책 인문학을 기조로 내세우고 부산학 연구의 네트워크와 미래 부산을 위한 다양한 성과를 공유해 왔습니다. 올해는 4권의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시민총서는 산업화시대 부산의 주거문화를 다루었습니다. 부산의 다양한 주거 형태는 6·25 전쟁, 산업화 등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형성되어 왔으며, 부산시민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독특한 부산만의 주거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타 도시 주거 형태와는 차별화된 주거 문화의 변천 과정은 비(非)계획적인 도시 확장과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산만의 독특한 주거 문화는 현재 부산의 정체성(Identity)을 상징하고, 도시의 이미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고찰하였습니다.

교양총서에서는 커피도시 부산을 조명하였습니다. 커피로 인한 부산사람들의 삶과 생활상의 변화, 산업적 성장 등 부산지역의 커피 역사 및 시대적 현

상에 기반한 생활밀착형 커피 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지리적, 환경적 특성 등 로컬성을 기반으로 성장한 부산의 커피산업을 살펴보고 복합문화 공간이었던 다방문화부터 카페문화에 이르는 부산의 커피문화를 소개하였습니다. 커피로 인한 부산의 사람들의 생활과 삶의 변화와 부산 출신 월드 바리스타들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력 등 미래 지향적 관점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총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마을시리즈 최종본으로 낙동강 하구 연안의 구포, 덕포, 대저·명지를 대상으로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조망하였습니다. 이들 지역은 과거 부산광역시에 편입된 이후에도 각 마을들이 지닌 각각의 특성으로 인해 변화와 발전 과정 역시 서로 다른 양상을 띠고 전개되었습니다. 현재는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대다수의 자연마을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주민이 타지로 옮겨가는 한편 새로운 주민들이 이들을 대체해 대거 이주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분명한 지역사 인식과 마을공동체 회복, 주민자치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기획총서에서는 부산의 사투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지역의 정체성을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의 말과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산 사투리’를 통해 부산의 정신, 역사, 문화, 사람, 기질 등 부산인의 생활방식과 삶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사투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숙고하는 과정 안에서 부산 지역 사투리를 활용한 미디어 속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아이디어 연계를 통한 부산지역 언어문화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투리를 통해 부산 언어문화(Busan-Culture)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자랑스러운 도시 부산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한정된 예산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연구를 수행해 주신 집필진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센터 운영과 연구 방향, 연구과제에 대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자문을 아끼지 않으신 센터자문위원 및 과제별 자문위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끝으로 부산학연구센터의 연구와 활동에 도움을 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은 부산학연구센터가 2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가 됩니다. 앞으로도 연구 결과를 다양한 측면에서 부산시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부산연구원 원장 신현석

발간사	5
들어가며	10

I	II	III																																						
부산 사투리에 대한 언어학적 배경	부산 사투리의 이모저모	경제적 재화(財貨)로서 부산 사투리																																						
<table> <tr> <td>부산 사투리의 이해</td> <td>18</td> </tr> <tr> <td>부산 사투리의 결정 요소</td> <td>21</td> </tr> <tr> <td>부산 사투리의 성립과 변천</td> <td>24</td> </tr> <tr> <td>부산·울산·경남 사투리의 구획</td> <td>26</td> </tr> </table>	부산 사투리의 이해	18	부산 사투리의 결정 요소	21	부산 사투리의 성립과 변천	24	부산·울산·경남 사투리의 구획	26	<table> <tr> <td>부산 사투리의 다양한 형태</td> <td>42</td> </tr> <tr> <td>대체불가 만능어 부산 사투리</td> <td>45</td> </tr> <tr> <td>경제성 높은 부산 사투리</td> <td>52</td> </tr> <tr> <td>바다를 건너온 부산 사투리</td> <td>54</td> </tr> <tr> <td>기타 부산 사투리</td> <td>59</td> </tr> <tr> <td>부산 사투리의 이미지 변화</td> <td>63</td> </tr> </table>	부산 사투리의 다양한 형태	42	대체불가 만능어 부산 사투리	45	경제성 높은 부산 사투리	52	바다를 건너온 부산 사투리	54	기타 부산 사투리	59	부산 사투리의 이미지 변화	63	<table> <tr> <td>언어경관 속 부산 사투리</td> <td>70</td> </tr> <tr> <td>사투리의 언어 경관</td> <td>74</td> </tr> <tr> <td>부산 사투리, 상품으로 다시 태어나다</td> <td>79</td> </tr> <tr> <td>부산 사투리, 활용의 한계는 어디인가</td> <td>84</td> </tr> <tr> <td>사투리로 읽고, 듣는다</td> <td>88</td> </tr> <tr> <td>미디어 속 부산 사투리</td> <td>91</td> </tr> <tr> <td> </td> <td></td> </tr> <tr> <td>나오며</td> <td>114</td> </tr> <tr> <td>참고문헌</td> <td>124</td> </tr> </table>	언어경관 속 부산 사투리	70	사투리의 언어 경관	74	부산 사투리, 상품으로 다시 태어나다	79	부산 사투리, 활용의 한계는 어디인가	84	사투리로 읽고, 듣는다	88	미디어 속 부산 사투리	91	 		나오며	114	참고문헌	124
부산 사투리의 이해	18																																							
부산 사투리의 결정 요소	21																																							
부산 사투리의 성립과 변천	24																																							
부산·울산·경남 사투리의 구획	26																																							
부산 사투리의 다양한 형태	42																																							
대체불가 만능어 부산 사투리	45																																							
경제성 높은 부산 사투리	52																																							
바다를 건너온 부산 사투리	54																																							
기타 부산 사투리	59																																							
부산 사투리의 이미지 변화	63																																							
언어경관 속 부산 사투리	70																																							
사투리의 언어 경관	74																																							
부산 사투리, 상품으로 다시 태어나다	79																																							
부산 사투리, 활용의 한계는 어디인가	84																																							
사투리로 읽고, 듣는다	88																																							
미디어 속 부산 사투리	91																																							
나오며	114																																							
참고문헌	124																																							

### 왜 지금, 부산 사투리인가?

부산 사투리는 ‘성조가 뚜렷하고 말이 빠르고 함축이 많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 이로부터 파생되는 부산 사투리의 이미지는 ‘강하다’, ‘무뚝뚝하다’로 대변된다. 다른 지역의 사투리는 성조보다 장단으로 말을 구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부산 사람은 높낮이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어려운 길이가 긴 모음으로 발음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성조가 있는 부산 사투리는 부산인의 삶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짧지만 전달력이 강한 그러한 말이다. 여러 학자가 말하길 장황한 말은 전달력이 매우 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부산 사투리는 ‘전달력’과 ‘함축성’ 측면에서 세계 그 어떤 언어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함축적인 말이 탄생한 이유를 부산이라는 지형적 특성에서 찾기도 한다. 바다와 가깝고 뱃일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산에서 자연스레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뱃일은 매우 고단하고, 힘들며

체력 소모가 많아 지치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의사전달을 위해서 장황하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기력 소모가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효율적으로 함축하여 말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설명하게 될 전지전능 만능의 부산 사투리가 그러하다. 항구에서 또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배 안에서는 짧게 함축하여 말하는 것이야말로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부산의 숙명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만들어진 것이 부산만의 사투리가 된다.

그래서 지역의 정체성을 언급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지역의 말과 문화다. 우리는 ‘부산 사투리’를 통해 부산의 정신, 역사, 문화, 사람, 기질 등 부산인의 생활방식과 삶을 알아갈 수 있다. 부산 사투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숙고하는 과정에서 부산 지역 사투리를 활용한 미디어 속 다양한 문화 콘텐츠와 아이디어 연계를 통해 부산지역 언어문화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사투리를 통해 부산 언어문화(Busan-Culture)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며 자랑스러운 도시 부산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부산 사투리를 자랑스럽게 사용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부산다움’이다.

‘욕’ 같지만 ‘욕’ 같지 않은 부산 사투리, 결국 최해군 선생의 말처럼 부산 사투리는 ‘화통(火筒)’이라는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화통하지만 정서적 교감이 있는, 게다가 허물없는 친구가 툭 던지는 안부 인사처럼 친근감을 가진 부산 사투리, 이것이야말로 부산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이다.

## ‘부산’ 사투리의 시간과 공간

사람과 사람의 추억이 가장 많이 깃든 곳은 ‘장소’이다. 이러한 장소라는 공간에는 어린 시절 온몸으로 느꼈던 오랜 시간의 기억과 추억이 누적되어 치유의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다. 유년 시절 가졌던 꿈과 추억에는 우리의 언어문화 생활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어릴 때 사용했던 추억의 어휘에 대한 기억에 많이 남아 있다. 그만큼 언어, 즉 사투리라는 매개(媒介)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의 문화를 유심히 관찰할 수 있다. 언어문화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지만 우선 살펴보고자 하는 부산 사투리의 범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범위는 ‘시간적’ 범위와 ‘공간적’ 범위를 의미한다.

이 책에서 공간적 범위는 일제강점기를 지내고, 해방된 후 전쟁을 피해 남으로 내려와 정착한 피란(避亂) 수도 부산의 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시간적 범위로는 일제강점기와 전란(戰亂)을 겪었고, 산업화의 부흥 속에 발전해 나가는 근현대 부산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본다. 특히 이 책 안에서 부산의 언어문화에 대해 ‘시대성(Sense of Time)’과 ‘장소성(Sense of Place)’을 연관 지어 살펴보겠다.

우선 ‘장소성’과 ‘시대성’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진아(2019)에서도 언급하였지만 ‘장소성’에 대한 정의 중 대표적인 것이 에드워드 렐프(Edward Relph)의 이론이다. 렐프의 ‘장소성’이란 ‘특정한 물리적 환경 안에서 인간의 활동과 경험 등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의미가 더해질 때 형성되는 것’이

라고 설명하고 있다. ‘장소성’이란 용어는 지리학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현재는 지리학뿐만 아니라 문화지리학, 문화인류학, 언어학과 같은 여러 연구 파트에서 ‘장소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국의 역동적 삶의 현장이면서 고난의 시간을 걸어온 부산에서 고단한 일상의 삶이 투영된 말, 그리고 전국 팔도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이동과 함께 재생산되고 재탄생된 언어문화, 즉 치유의 공간에서 성장한 부산 사투리에 대하여 알아 가보도록 하겠다.

‘장소성’과 ‘시대성’을 접목시켜 부산 사투리를 살펴봄으로써 그 시절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했던 단면을 끼워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흘러 예전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해 오는 부산의 언어문화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치열하게 달려온 부산의 언어문화 접촉에 대해 조금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부산 사투리와 언어문화

말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통하는 공통어와 특정 지역에서만 통하는 사투리로 크게 구분된다. 언어학에서는 전 세계 말이 계급 없이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잘 나가는 언어와 그렇지 않은 언어가 암묵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표준어와 사투리로 바꿔서 설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표준어와 사투리에 차이를 두는 것일까. 말 역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그 가치



가 달라져 왔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이후에는 표준어가 가장 가치 있는 말로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여졌다. 시대를 움직이는 대세에 따라 표준어가 중시되고, 그 대세를 따르지 못한 사투리와 같은 지역 말들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게 됐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준어나 사투리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어와 사투리 사이에 등급이 나뉘고 있다. 사투리뿐만 아니라 모든 학문 속에서 흐름과 대세라는 실상은 존재한다.

글로벌화가 되면서 실용적 학문이 대세가 되었다. 돈에 삶의 무게를 두는 세상 풍조가 만들어낸 모습이다. 따라서 인간 중심의 사람 냄새 나는 인문학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인문학은 사람이 사람답기 위한 풍요함을 누리기 위한 학문이다. 마치 인문학이 슬로우 학문일지라도, 그 느낌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며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다. 조급할 수로 변죽이는 아이디어는 떠오르지 않는다. 인문학에서는 조급함이 배제되어야하고 우리의 말, 사투리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다. 느리지만 천천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소외된 언어인 사투리에 대한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사투리 조사 방향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투리에 대한 서적은 극히 적은 수에 불과하다. 사투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 및 일반 시민에게 다양한 참고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어느 학자의 ‘사투리의 존재가치’라는 에세이를 통해 사투리의 심리적 가치에 대해 환기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언어는 의사소통의 도구이며,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한 것을 전하는 것이 말의 역할이다. 이는 언어학적 상식이고, 사투리도 말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투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의 도구가 아니다. 사투리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흥냄새가 나고 고향의 일부를 느낄 수 있는 존재이다. 그래서 사투리를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진다. 예를 들어 ‘괜찮으세요?’보다 “꽤안심까?”라고 말하면 마음이 포근해지는 것을 느낀다. 사투리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치유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지 오늘날과 같은 팬데믹 상황 속에 더욱 자각하게 된다. 사투리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온기를 전하는 말인 것이다. 사투리는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기분을 풍요롭게 하는 존재가 되고 있다. 글로벌화의 흐름 속에서 효율성 좋은 표준어가 확산하였지만, 이는 지역 주민의 마음에 와닿는 말이 아니며 정서적으로 울림과 감동을 주는 사명은 사투리가 담당해야 한다.

근현대의 굴곡진 역사 속 부산은 대한민국 안에서 매우 강하고 빠르게 성장했다. 이러한 가운데 부산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것은 ‘말’이다. 같은 말을 사용하는 것은 같은 문화를 공유한다는 것이고, 끈끈한 유대감 속에 같은 정서를 향유하고 있다. 해역도시 부산이라는 열린 공간 안에서 격식을 차리지 않고 습관적으로 툭 던지는 부산 사투리를 통해 속정이 깊은 부산만의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음을 매 순간 확인할 수 있다.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따뜻한 사투리, 그것은 부산의 말이고 부산의 문화인 것이다.



# I

## 부산 사투리에 대한 언어학적 배경

부산 사투리의 이해

부산 사투리의 결정 요소

부산 사투리의 성립과 변천

부산, 울산, 경남 사투리의 구획

## 부산 사투리의 이해

부산 사투리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다양성을 품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의 동부와 서부 경남의 말이 다르고, 사회적 속성으로 구분 지어 봤을 때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부산의 '장소성'과 '시대성' 그리고 '도시성'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부산 사투리를 빠르게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열린 공간 부산에서는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 교류하고 접촉하며 살아간다. 이러한 교류와 접촉 속에 만들어진 말,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산말이며, 부산 사투리이다. 원래 '사투리'라는 용어에는 차별적 의식이 내포되어 있다. 그래서 '부산 사투리'를 '부산말'로 바꾸어 사용하자는 주장도 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이러한 차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더욱더 부산 사투리의 용어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산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말'이든 '부산 사투리'든 용어의 민감함은 차치하더라도 바르게 부산의 사투리를 이해하고, 세상을 향해 발신하는 것이야말로 진솔한 부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싶다.

부산의 향토사를 집대성한 소설가이자 시민운동가

인 솔피 최해군 선생은 소설을 쓰기 위해 부산을 탐구하였고, 그렇게 탄생한 소설이 전 3권으로 구성된『釜山浦(부산포)』라는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부산 사투리 중 어미 활용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장편소설  
『釜山浦(부산포)』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사투리의 어미 활용? 안 선생도 내 사투리 어미 활용을 들었군그래.’ ‘선생님의 그 어미 활용을 못 들었을라구요. 한 번 더 들려주세요.’ ‘우리 안 선생이 듣고 싶은데 안 할 순 없지.’ 하고는 <가다> 끝바꿈이다, 한 뒤 목청을 가다듬고 간대이, 갑니더, 하고 뒷 꼬리를 이곳 부산 사투리 모양 길게 빼고는 계속 ‘갔읍니더, 갑더, 가는갑다, 가는가배, 갈랑갑다, 갈랑가배, 갈끼이, 갈끼이요, 갈끼다, 갈꾸마, 갈꺼마’ 가락이 붙은 <가다> 끝바꿈이 멋지게 굴러간다.

그 가락은 이곳 부산 사투리의 억양을 좀 과장해서 본뜬다. ‘가지러, 가고 말고, 가데, 갑디더, 갈꺼로, 갈끼이, 가라모, 가래가? 갈기요? 가거로, 가

아라이, 가세이, 가자이, 가재이, 갑시더, 갑시데이, 가입시더, 가입시데이’ 길게 빼었다가 짧게 오므렸다가 높였다가 낮췄다가 하는 가락이 신명을 돋운다. ‘가문, 가니꺼, 가니꺼내, 가이꺼내, 가이꺼내, 가거덩, 가아야, 가거마는, 가구마는, 간다캐도, 갈라쿠니, 갈라카이, 가디끼, 가딘둥, 가두룩’ 이 선생은 오랜만이란 생각이다. 그새 아내가 죽고 1년 동안은 술자리에 앉아도 노래 한 번 부르지 않았다. 술자리에 앉으면 사투리 송법(誦法)으로 좌중을 웃겼는데 그 사투리 송법도 삼갔다. 아내가 죽은 그 1년 동안은 상중(喪中)이라 그랬지만 그 뒤 1년은 이래저래 맥이 빠져들었다. 그런데 오 늘은 어쩐지 술기운에 기분을 내맡기고 싶다.

술기운을 빌린 부산 사투리의 끝바꿈 표현 노래에는 부산 사투리만의 매력이 담겨있다. 이처럼 최해군 선생의 장편소설 부산포는 부산사(釜山史)에 대한 관심을 넓게 확산시켰을 뿐 아니라 부산 사투리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문말 어미의 다채로운 변화는 부산 사투리가 미묘한 감정 양상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낸 소설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 부산 사투리의 결정 요소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이근열 교수는 부산 방언을 구분 짓는 요소 즉 변별소(辨別素)를 지리적, 역사적 특성 안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우선 지리적 요소는 항구도시 부산의 지형적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부산 사투리의 언어 주체인 부산 사람들이 어업에 종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내륙에 위치한 대구나 진주 창원, 김해와 같은 경상도의 거점도시보다 훨씬 바다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부산 사투리는 바다와 관련된 사투리가 발달할 수밖에 없고, 짧은 음절의 어휘가 발달하였다고 이야기한다.

다음으로 역사적 요소로 부산을 바라볼 경우, 경상 좌도와 경상 우도의 경계 지역에 속해 있는 부산은 동서 차이가 크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는 예능인에 빗대어 설명하자면 부산 사투리는 강호동의 서부 경남말과 김제동의 경북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처럼 ‘같이 보이지만 다르다는 것’이 어찌면 부산 사투리의 매력일 수 있다. 뒤에 설명할 김정대 교수의 동서 분할, 남북 분할 구분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투리라는 것이 규격화되어 딱 떨어지는 구분은 없으며, 전

이(轉移) 지대라는 것이 존재한다.

부산 사투리의 역사적 변별 요소 중에 흥미로운 것은 군사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군대는 규율에 매우 엄하기 때문에 남성 중심의 말이 발달하였기 때문에 매우 단단한 느낌의 부산 사투리가 탄생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전에 동래는 수영강을 중심으로 경상북도로 가는 길목이었고, 구포는 강을 따라 경상북도 내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였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시대부터 왜구의 공격을 자주 받았다. 이렇듯 부산의 모든 지역이 어찌면 군영(軍營)이었던 셈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부산은 스스로가 강하고 거칠고 끈기 있다는 인식이 자리잡았던 것일 수도 있다. 결국 부산이 여타 지역과 다른 이러한 변별적 요소와 문화 때문에 축약이 많고, 빠르고 조급한 말투가 많은 부산 사투리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 부산 사투리의 변별적 요소로 바다를 건너온 일본의 흔적을 이야기하고 있다. 부산은 지리적 여건상 일찍이 일본과의 상업 교류가 빈번했다. 거슬러 올라 신라 시대부터 왜구의 출몰이 잦았고 일본 사절의 숙소를 김해에 둘 만큼 일본과의 연관성은 높다. 15세기 부산진성의 영역 안에 부산포왜관을 두었고, 임진왜란 이후 절영도 임시 왜관을

두기도 하였다. 그밖에 두모포왜관, 초량왜관 등 많은 왜관이 만들어졌다. 말은 교류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잦은 이동이 있다 보면 혼종은 피하기 어렵다. 즉 어떻게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레 섞인다. 부산 사투리에 남은 이러한 일본어의 흔적을 뒤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부산 사투리의 변별소 중 이질성(異質性)을 이야기하고 있다. 피란수도 부산은 한국전쟁 시기에 미군으로부터 군수물자가 집중되면서 전국 방방곡곡 피란민이 정착했다는 점, 대한민국 임시 수도였다는 점, 산업화 시대에 섬유나 신발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영향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많은 근로자가 모여들었다는 점 등을 들어 부산 사투리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부산 사투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이질성은 매우 중요한 변별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 부산 사투리의 성립과 변천

부산 사투리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넓게는 한국의 사투리 구획 구분, 좁게는 경남 지역의 사투리 구획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부산 사투리에는 앞서 말한 것처럼 다양한 사투리가 공존하는 다면적 언어이기 때문이다. 우선 경남 사투리를 김정대 교수의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안에서 이근열 교수의 연구를 토대로 부산 사투리의 자리매김을 관찰해보겠다.

원론적으로 볼 때 부산 사투리는 동남방언이라는 대방언 권에 속한 말이며, 조금 더 들어가면 경남방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동남방언은 같은 언어권이기 때문에 차이점보다 공통점이 많은 것은 당연하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은 경상북도 사투리인지, 경상남도 사투리인지 헷갈리는 경우도 많다. 그래도 지역을 구분하는 사투리의 구획작업은 필요하다. 이미 많은 언어학자가 이야기했듯이 방언구획을 자로 재듯이 구분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한국어를 대상으로 방언구획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제안한 것은 최명옥 교수다. 그는 경남방언을 먼저 경남 동부방언과 경남 서부방언으로 나누고 있다. 이러한 ‘동서분할’에 대한 논고는 예전부터 있었다. 다만 김정대 교수

에 따르면 경남 서부방언을 다시 경남 서남부방언과 경남 서북부방언으로 나눌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방언구획의 논의는 지리적 위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낙동강이 경남방언을 동서로 나누는 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낙남정맥(洛南正脈)이라는 산줄기가 경남 서부방언을 그리고 다시 남북으로 나누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 부산·울산·경남 사투리의 구획

앞서 부산 사투리의 변별적 요소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별적 요소를 사투리 구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자. 우선 부·울·경 지역에 해당하는 경남방언의 구획은 다음과 같다. 경남방언은 일차적으로 동서로 크게 나누어지며 그 경계는 대략 낙동강 본류와 관련이 깊다. 다만 창원지역 사투리를 나누는 방식이 서로 다르다. 결과적으로 창원지역 사투리는 전이 지대(transition zone) 말로 보지만 경남 동부의 말투가 매우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산·울산·경남의 행정 구역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경남방언을 구분 짓기 위해서 음운적 측면, 문법적 측면, 그리고 어휘적 측면에서 등어선(等語線)을 나누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분 요소를 바탕으로 '경상방언'이라는 큰 틀과 '경남방언'과 '경북방언'이라는 중간 틀을 활용하고 있다. 사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방언구획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음운'이나 '문법', 그리고 '어휘'적 측면에서 깨끗하게 나뉘는 말들도 존재한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종종 있다.

예를 들어 김정대 교수는 '겨드랑'이라는 어휘를 기준으로 살펴 본다면 밀양, 양산, 김해 지역과 창녕, 창원 사이에 등어선이 형성되고, '여우'를 기준으로 살펴본다면 창녕, 창원, 김해, 사리와 함천, 의령, 진주, 고성, 통영, 거제 사이에 등어선이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단순히 등어선 하나의 문제는 아니고, 경남방언의 하위 방언구획 설정에 많은 영향을 준다. 다만 여기서는 이렇게 미세하게 구분하기보다는 부산 사투리가 언어학적으로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그리고 앞서 설명한 음운, 문법, 어휘의 대표 사례를 통하여 경계를 가르는 지점에 대해서 언급해보고자 한다.

## 동서 분할

경남방언을 동서로 분할하는 문제를 음운, 문법, 어휘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리한 연구결과가 있다. 김정대 교수에 따르면 창녕과 합천, 의령 사이를 지나고 함안의 일부와 창원의 서남부를 통과하며, 거제와 가덕도를 지나는 등어선 속이 경남방언을 동서로 분할하는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음운으로 구분되는 부산 사투리

#### <단모음>

경상도 방언은 단모음 수가 다른 지역 방언에 비해 많지 않다. ‘위(y), 외(∅)’의 단모음이 없고, ‘어(ə)’와 ‘으(i)’의 변별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다수 지역에서 ‘에(e)’와 ‘애(ɛ)’도 구별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경남 지역에서 여덟 모음을 다 갖춘 곳은 유일하게 함양이다. 즉 함안 지역은 창원과 가까운 곳에서는 둘이 구별되지 않고, 의령, 진주와 접경 지역은 구별되는 전이 지대이다. 단모음에 대한 이와 같은 차이는 경남방언을 나눌 때 도움이 된다.

8단모음 계열(i e ε a i ə u o)- 함양

7단모음 계열(i e ε a ɜ u o)

- 거창 합천 산청 의령 하동 진주 함안 사천 남해 고성 통영

6단모음 계열(i E a ɜ u o)- 창녕 밀양 울산 창원 김해 양산 부산 거제

6개의 단모음 체계는 경남 동부방언에 속하고, 7~8개의 단모음 체계 지역은 경남 서부방언에 속하게 된다.

#### <‘리’ 받침의 재구조화>

똑같은 ‘리’ 받침이더라도 경남방언에서 나타나는 받침의 재구조화는 다음과 같다. ‘흙’의 경우 낙동강 본류(本流)를 중심으로 동쪽은 ‘리’로 재구조화되고(‘흙, 흐리, 흐를’ 등), 서쪽은 ‘키’로 재구조화된다(‘흙, 흐키, 흐클’ 등). 경북과 인접한 밀양, 울산, 그리고 양산 일부 지역에서는 ‘리, 리키’의 겹받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경북 방언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문법으로 구분되는 부산 사투리

문법적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할 어휘는 ‘인용’의 ‘-고 한다’와 ‘오’의 명령형 ‘오나라’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고 한다’>

표준어에서 간접 인용을 나타내는 ‘-고 한다’는 경남방언에서 대부분 ‘칸다’(아형)와 ‘쿤다’(우형)로 나타난다.

칸다 - 창녕 밀양 울산 양산 부산 김해 창원(일부) 함안(일부);거창

쿤다 - 합천 함양 산청 의령 진주 사천 남해 고성 통영 거제 함안(일부) 창원(일부)

헌다 - 하동

흥미로운 것은 경남 동부에서는 ‘칸다’를 사용하고, 서부에서는 ‘쿤다’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거창에서는 오히려 ‘칸다’를 사용하고 하동에서는 ‘헌다’를 사용한다. 하지만 거창 사투리와 하동 사투리의 문제는 인근 지역의 사투리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거창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경북의 ‘칸다’의 영향이며, 하동의 ‘헌다’는 전라도 방언의 영향일 것이다. 지리적 근접 효과에 따른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

### <‘오너라’>

표준어 ‘오너라’에 관한 경남방언은 세가지 패턴이다. 울산 지역의 ‘오너라’, 울산을 제외한 동부의 ‘온나’, 서부의 ‘오이라’가 있다. 따라서 ‘오너라’의 경남방언도 동서로 선명하게 분할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어휘로 구분되는 부산 사투리

어휘적 측면에서 사투리의 구분은 쉽지 않다. 음운이나 문법만큼 깔끔하게 동서 분할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 어휘지만 그중에서 동서 진영으로 일차분할 가능한 어휘가 ‘부추, 대님, 고삐’가 있다. 그중에 부추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고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 <부추>

‘부추’에 해당하는 경남방언은 ‘정구지’ 계열과 ‘소풀’ 계열로 구별할 수 있다. ‘정구지’는 경남 동북지역에서 주로 발견되고, ‘소풀’은 경남 서남지역에서 발견된다.

‘정구지’계- 거창 합천 창녕 밀양 울산 양산 김해 창원

‘소풀’계- 함양 산청 의령 하동 진주 함안 사천 고성 남해 통영 거제

거창과 합천이 ‘정구지’계라는 것이 지금까지 인식해왔던 경남방언 구획과는 조금 다른 점이라고 김정대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다. 부

추에 대해서는 전국 분포를 포함하여 다음 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이처럼 경남방언의 일차분할 즉 동서 대립에 대해 음운, 문법, 어휘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경남 서부방언을 다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동서의 일차분할이 아닌 남북의 이차분할의 모습을 나누어 보겠다. 이차분할 역시 앞서 설명한 방식과 같은 형식으로 음운, 문법, 어휘의 예를 가지고 설명하겠다.

## 남북 분할

### 음운으로 구분되는 부산 사투리

<‘jʌ’의 문제>

부산을 포함한 경남방언의 ‘여덫’이라는 발음을 생각해보면 ‘jʌ’의 음운이 경남방언을 남북으로 구분할 수 있겠다는 힌트를 준다. ‘jʌ’와 연관된 ‘여덫’의 문제는 경남 서부방언이 다시 남북방언으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여덫’은 하동, 남해, 사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에서는 ‘야’계(‘야달’ 등)로 나타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여’계(‘여달’ 등)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야달’로 표현- 하동 남해 사천 진주 고성 통영 거제

‘여달’로 표현- 그 밖의 지역

발음문제에 있어서 모음 문제와 더불어 부산에서는 된소리를 일으키는 자음을 자주 접한다. 이는 첫음절이 강하게 들리는 부산 방언과 첫음절에 강세가 많은 일본어와 유사한 점이라고 볼 수 있다.

### 문법으로 구분되는 부산 사투리

문법적 측면에서도 경남 서부방언을 남북으로 분할 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이렇게 분할시킬 수 있는 문법적 요소는 ‘-느냐?’와 ‘-네?’의 형식과 연관된다.

<‘-느냐?’의 문제>

‘-느냐?’가 주목받게 된 것은 김정대 교수의 연구를 통해서다. 표준어 “(밥을) 먹느냐?”와 같이 어간(語幹)이 자음으로 끝나는 경우 경남방언은 대부분 지역에서 “(밥을) 묵나?”로 표현된다. 그러나 서남부 경남 지역, 즉 진주, 사천, 통영, 고성, 거제에서는 이를 “(밥을) 묵느냐?”라고 표현한다. 어간이 모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오나?”로 사용하지 “\*(비가) 오느냐?”와 같은 말은 쓰지 않는다. ‘-느냐?’가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보다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앞에서 그 어형을 먼저 상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느냐?’ 존재 지역 - 진주 사천 통영 고성 거제

‘-나?’ 존재 지역 - 그 밖의 지역

### <‘-네?’의 문제>

‘-느냐?’는 의문사가 없는 관정의문문에서 사용되는 ‘해라체’ 어미다. 그렇다면 경남방언에서 의문사가 있는 ‘해차레’는 대부분 지역에서 ‘-노?’를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예상대로 서남부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네?’가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 지역에서 “(어디) 가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 지역에서는 “(어디) 가네?”로 묻게 되는 것이다.

‘-네?’ 존재 지역 - 진주 사천 하동 남해

‘-노?’ 존재 지역 - 그 밖의 지역

## 어휘로 구분되는 부산 사투리

마지막으로 어휘적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어휘는 ‘식혜, 자물쇠’가 있다. 사투리 어휘는 일차분할 때와 마찬가지로 음운, 문법의 사례보다는 깔끔한 등어선을 나타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서부방언이 다시 남북으로 구획될 가능성을 알게 해준 어휘인 셈이다.

### <‘식혜’>

‘식혜’의 경남방언은 크게 ‘단술’ 계열과 ‘단물’ 계열로 나뉜다. ‘단물’계가 남부 방언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진주가 빠졌다는 점만 제외한다면 앞서 설명한 ‘-느냐?’와 비슷한 지역분포를 보인다.

단물 - 사천 고성 통영 거제

단술 - 그 밖 지역

이처럼 김정대 교수의 ‘경남방언 구획 문제를 다시 생각하다’에서 설명한 ‘일차분할’과 ‘이차분할’의 구분법을 활용하여, 경남의 사투리를 정리할 수 있었다. 이를 종합하여 부산 사투리의 자리매김과 경남방언을 분류하면 다음 표, 그리고 그림과 같다.

	동서분할	남북분할	지역
경남방언	경남동부방언	-	창녕, 밀양, 울산, 양산, 창원, 김해, 부산
	경남서부방언	경남서북부방언	거창, 합천, 함양, 산청, 의령, 함안, 고성
		경남서남부방언	하동, 남해, 진주, 사천, 통영, 거제

부산 사투리가 포함된 경남 사투리 분류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해 보면 부산의 사투리는 큰 틀에서 경상방언에 속하고, 경상방언 중에서 경남방언, 더 나아가서 경남 동부방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방언의 구획은 지리적 특성과 상관있다. 그런 점에서 경남방언이 동서로 분할되는 것은 낙동강이 지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다만 창원 지역어가 예외적이다. 창원 지역어는 삼진을 중심으로 창원서남부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말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남 지역 사투리 구획으로 볼 때 그레이존(전이지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 사투리의 동서 분할 및 남북 분할

### 부산과 경북의 사투리 비교

부산에서는 헛갈리지 않지만 경상방언에 속한 부산말은 유독 중분류도 다른 경북방언과 구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남과 경북의 사투리는 미묘하지만 엄연히 다르다. 물론 경북 안에서도 서로 다르게 표현되는데 유흥준의 『나의 문화유산답사기』3편을 보면 경북 안동은 ‘~니껴’형의 북부 경상도의 방언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그 책을 보면 대구식 방언형 ‘~능교’형의 고평평(高平平) 억양과 안동식 ‘~니껴형’ 평고평(平高平) 억양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렇듯 경북 안에서도 다르지만, 경상북도와 경상남도는 더욱 다르게 표현된다.

기본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과 부산 사투리는 이렇게 구별하면 된다. “니 왜 그러는데”라는 말을 건넬 때 대구와 부산의 사투리는 억양뿐 아니라 표현까지 다르다. 대구 사투리로는 “니 와 카는데”라고 말하며 ‘와’ 부분에 강세를 준다. 한편 부산 사투리는 “니 와 그라는데”라고 표현하며 ‘와’ 뒷부분부터 음을 낮춘 뒤 ‘는’ 부분에 강세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같은 경상권이지만 부산과 경북은 매우 다르고 부산 안에서도 구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II

## 부산 사투리의 이모저모

부산 사투리의 다양한 형태

대체불가 만능어 부산 사투리

경제성 높은 부산 사투리

바다를 건너온 부산 사투리

기타 부산 사투리

부산 사투리의 이미지 변화

## 부산 사투리의 다양한 형태

부산 사투리는 어감이나 성조에 따라 크게 바뀐다. 특히 부산 사투리는 표준어와 다른 문말 표현이 다수 존재한다. 전형적인 부산 사투리를 체득하고 싶다면 문말 표현을 우선 익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자주 등장하는 의문문 형태인 ‘~나?’와 강조 및 확인을 체크하는 ‘~재’, ‘~래’, ‘~가’ 그리고 가벼운 부탁 및 지시를 나타내는 문말 표현 ‘~래이’, ‘~때이’, 말과 행동에 대한 재확인인 ‘~드나’, 마지막으로 친근함을 표현하면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인 ‘~교’, ‘~예’가 있다. 이를 다음과 같이 표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산 사투리의 특징은 된소리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쫌’, ‘쫌장어’, ‘깨쫌하다’, ‘쫌께’ 등과 같이 부산 사람들의 성향에 맞게 변화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뭐라고’를 ‘머라꼬?’, ‘했다고’를 ‘했다꼬?’처럼 된소리로 발음할 때에 격한 감정표현이 깊이 드러나게 된다. 이 밖에도 말끝을 올리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감정의 기복을 나타낼 수 있다.

또 부산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부산 사투리도 많다. 예를 들어 싫은 표현을 나타낼 때 부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구분	부산 사투리	표준어	표현	설명
~나?	그랬나? 좋았나? 밥뭇나? 자나?	그래? 좋아? 밥먹었니? 자니?	음수로 맛있나?	의문문
~재! ~래! ~가!	하지말랬재! 밥먹그래! 할끄가! 말끄가!	하지말랬지! 밥먹으랬지! 할꺼야!말꺼야!	니 시장 가랬재!	강조 및 확인
~래이 ~데이	밥먹으래이 방치우래이 1등했데이	밥먹어 방치워 1등했어	퍼떡 마시그래이	가벼운 부탁 및 지시
~드나	이상했드나 드름드나 바쁘드나	이상했지 더러웠지 바쁘구나	니방 드름드나?	행동과 말에 대한 재확인
~교 ~예	했능교? 했어예 봤능교? 봤어예	했어요? 봤어예?	아한테 말했능교?	높임 표현 ~교 < ~예

부산 사투리의 다양한 문말 표현

산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은다’는 외지인이 들었을 때는 전혀 못 알아듣는 단어다. 그렇지만 나중에 설명할 사투리 상품 중에 이모티콘이나 상품의 네이밍에도 자주 등장하는 어휘이다.

이외에도 중간중간 대화를 부드럽게 진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헤지(Hedge) 표현이 있다. 부산 사람들이 빈번하게 사용하는 ‘내나’와 같은 표현은 활용도가 꽤 높지만, 부



산 토박이가 아니면 좀처럼 사용하기 힘든 표현이다. 또 '부엌'을 '정지'로 부르거나, '벼'를 '나락'으로, '식혜'를 '단술'로 그리고 '달아나다'를 '내빼다', '간지럽다'를 '지거럽다', '쌀과자 뺑뺑기'를 '박상' 등과 같이 부르는데 부산 사람들은 이를 사투리라고 의식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단어가 뒤섞여 있다.

원래부터 부산 사람들도 많이 사용하고, 외지인도 곧잘 흉내 내는 '뒤라카노', '단디 하래이' 등과 같은 전형적 부산 느낌의 사투리도 존재한다. 그러나 '듬성듬성 비어 있다'라는 의미의 '혈빈하다', '빡빡하게 들어차 있다'의 '부풀다', '가격이 매우 싸다'의 '헐타' 등과 같이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깊이 파고든 부산 사투리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아낄 필요가 있다. 이런 어휘야말로 아끼고 보존해야 할 부산의 문화자산인 것이다.

이처럼 문말 표현이나 단어 레벨에서 부산 사투리를 이모저모 따져보는 것도 재미있다. 그런데 누구나가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부산 사투리의 가장 큰 특징인 '함축적이고 강한 부산 사투리'를 표현하는 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지전능 한 음절 만능어 부산 사투리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무엇을 상상하든 여러 감정을 한꺼번에 대변할 수 있는 만능의 그 어휘들, 지금부터 살펴보겠다.

## 대체불가 만능어 부산 사투리

### ‘마!’

부산의 다이내믹함을 드러내는 운동이 있다. 너무나도 유명한 사직구장의 야구다. 부산시민이 초반에는 가을야구를 기대하지만, 번번이 포스트시즌 진출에 실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인의 야구사랑은 그 어떤 도시와 견주어 보더라도 절대 밀리지 않는다.

부산 사직구장에 들려오는 구호 ‘아주라’, 무엇인가 멋진 외국어 같지만, 부산만의 재치와 해학이 담겨있는 말이다. ‘아이에게 공을 건네주어라’의 줄임말로 내야나 외야석에서 파울볼이 왔을 때 어른이 아닌 아이들에게 양보해주라라는 미덕이 담긴 말투이다. 이렇게 야구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를 부산시민이라면 사직구장에서 경험할 수 있다. 이 야구장에서는 여러 가지 부산만의 구호를 경험할 수 있는데 특히 부산의 사투리의 짧고 강력한 메시지가 함축된 어휘가 있다. 그것은 ‘마!’라는 단어다. 사실 이렇게 함축된 부산 사투리 ‘마!’ 때문에 상대 팀 선수는 매우 당황하게 된다.

원래 ‘마!’는 친한 사이끼리 상대방을 부를 때 사용하

는 말로 '야'와 같은 의미이다. '이놈'하고 누군가를 부를 때도 사용하며, 가볍게 부르는 말이기 때문에 외사람에게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는 상황에 따라 '그만(고마웠다, 그만 하يس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부산의 야구팬들은 상대 투수를 견제할 때 '마!'라고 외친다(하나둘셋 마! 하나둘셋 마!). '마!'가 처음 사용된 것은 롯데가 매우 부진했던 시즌을 보냈던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롯데 응원단장이었던 성민재 단장이 어찌 보면 첫 사용자다. 경상방언 중 동남쪽 사투리 '인마!'를 줄여서 마!라고 부르는데 이 어휘를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롯데의 암흑기에 탄생한 마수걸이와 같은 응원구호 '마'가 2014년부터는 완전히 사직구장에 정착했다고 볼 수 있다. 롯데 팬들이 모여있는 내야석에서 들으면 비행기 소음만큼이나 큰 굉음을 들을 수 있다. 이 같은 부산 사투리의 응원 소리가 마운드에 홀로 서 있는 상대편 투수에게 전달된다면 그 생경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롯데 팬들 입장에서는 트레이드 마크가 된 이 자랑스러운 '마!'의 응원구호는 자신감 넘치는 에너지로 표출된다. 반면에 상대 팀에게 이러한 구호는 매우 심각한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어느 신문 보도에 따르면 롯데의 응원구호 '마!'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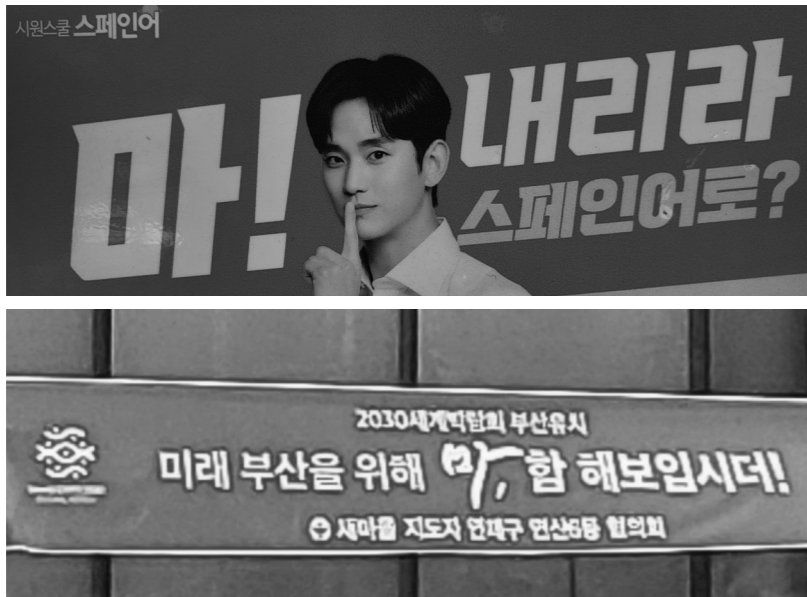
사직구장에서 경기 도중 조용한 편이라고 느껴졌을 때 소음 정도가 70~80데시벨이다. '마!' 응원은 상대 투수들에게 엄청난 위압감을 준다. 일반적인 함성과 달리 수천 명의 사람이 똑같이 맞춰 일시에 지르기 때문에 그 파괴력은 엄청나다. 그렇다면 프로야구 응원의 대표상품 격인 '마!'의 실제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직접 소음측정기를 들고 실측해 봤다. 사직구장 롯데-삼성전 두 경기에서 실측을 했다. 두 경기 모두 2만 8000석이 매진됐다. '마!' 함성의 심장부인 1루 측 응원단상에서 본부석 쪽으로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소음을 측정했다. 소음측정기를 든 기자는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함성을 지르지 않았다. 흥미로운 측정 수치가 나왔다. 이틀 연속 '마!'의 최고 수치는 107데시벨(dB)로 일치했다. 1회 말 무사 1루, 선발 투수가 주자를 견제했을 때 소음측정기에 107.5데시벨이 찍혔다. 당시 '마!' 함성이 세 차례 일정한 간격으로 고막을 때렸는데 마지막 것이 가장 컸다. 비행기 이착륙 소음에 맞먹었다.

스포츠조선 2012년 7월 9일 자 신문 중 발췌

이처럼 부산의 자랑, 롯데 자이언츠 그리고 사직구장의 응원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내뿜는다. 이는 부산의 사투리 '마!'에서 기인하였고, 짧고 굵고 강인한 한마디 '마!'는 그 어떤 수식어 응원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짧지만 호소력과 전달력을 갖춘 강력한 메시지는 응원구

호로 끝나지 않았다. 부산 경찰이 어두운 곳을 노리는 범  
 죄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담은 ‘마! 라이트’를 부산 골  
 목길에 설치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아래 포스터처럼 ‘마! 내리라’라는  
 문구가 버스에 붙어 있다. 한 어학 사이트 홍보용 포스터  
 인데 부산에서만 볼 수 있는 지역 맞춤형 광고로 활용되기  
 도 한다.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만능어 ‘마’를 활용함  
 으로써 주변으로부터 시선 강탈을 끌어내며, 부산 사투리  
 인 ‘마’를 과연 외국어로 어떻게 표현할까?라는 생각을 하



‘마’ 사투리를 활용한 광고게시물

게 만든다. 결국 광고의 요소인 강한 인상, 뇌리에 남게 만  
 드는 극적 효과를 만들어내는데 여기에 부산의 대표 사투  
 리 ‘마’가 사용되었다.

또 다른 사례로 ‘미래 부산을 위해 마, 함 해보입시  
 더!’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현수막이 있다. 이는 2030  
 세계 박람회 부산유치를 기원하며 부산시민의 결속을 다  
 지고자 내건 플래카드이다.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그 전달력과 파급력을 인정하는 한 단어 ‘마’를 통하  
 여 어떻게든 2030 부산 EXPO를 관철해내고 싶다는 행정  
 기관의 메시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 ‘쫘’

다음으로 부산 사투리 중 짧지만 강한 임팩트가 있는  
 사투리가 또 있다. 싫거나 짜증 난다는 의사를 전달할 때  
 사용하는 전지전능 사투리 ‘쫘’이다. 부산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사투리로 ‘쫘’은 ‘쫘’과는 사뭇 다른 의미가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부산 사투리의 특징 된소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감정의 기복을 훨씬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간  
 단히 이야기한다면 ‘하지마’, ‘왜 그래’, ‘귀찮아’, ‘가만히 있

어' 등의 함축적인 의미가 담겨있어 아래 예시와 같이 활용되기도 한다.

부산사투리	표준어
<b>쫘!</b>	하지마
	너 짜증나
	넌 애가 왜 그 모양이야?
	조용히 해, 시끄러워
	가만히 못있니?
	그건 쯤 아닌데
	까블래?

'쫘'의 부산 사투리와 표준어 비교

'쫘'은 정말 다양한 장면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서울 같으면 싫은 상황 속에서 '하지 마'를 외치고 싶을 때 부산에서는 '쫘', 이 한마디면 충분하다. 그리고 '너 짜증 난다', '넌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를 표현할 때도 '쫘'이다. '가만히 안 있어?' '그건 조금 아닌데', '까블래?' '덤비는 거야?' 이러한 감정을 나타낼 때도 부산에서는 '쫘' 한마디면 모두 공감한다. 어떤 뉘앙스로 어떻게 말하느냐

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사투리 '쫘'은 나의 의사를 강렬하게 어필하거나 표시할 때 쓰는 말이다. 기본적인 '쫘'의 발성은 힘을 줘서 세게 말해야 한다. 짧고 간단하게 의사를 전달할 수 있으면서도 싫은 일이 반복되는 모든 상황에서 단호하게 사용 가능하므로 아주 매력적인 부산 사투리인 것이다.

## 경제성 높은 부산 사투리

부산 토박이들은 대체로 사투리의 성조가 비슷하다. 사투리의 리듬이 빠르고 억양이 거세기 때문에 다른 지역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부산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

우선 언어의 '경제성'이란 '가급적 말을 적게 하고 의사 전달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이라 설명할 수 있겠다. 언어의 '경제성'이라는 측면에서 부산 사투리를 바라보았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사투리의 특징 중 하나인 '성조'가 존재하여 같은 말도 성조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하다. 그리고 '머~나?' '머~노?'의 의문문을 다음처럼 구분하여 Yes / No로 답해야 하는 '나?' 계열 의문문과 구체적 사항을 제시해야 하는 '노?' 계열 의문문처럼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밥 못나?', '뭐 못나?', '시장에 가나?'로 묻는 것은 '아' 계열의 의문문이고, '학교에 언제 가노?'처럼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오' 계열의 의문문이다. 또 명령어 '무'는 '먹어라'의 말투인 셈이다. 이렇게 부산 시민은 별다르게 의식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사투리의 일반적 규칙이 존재한다. 그리고 '먹지 않았다'를 '안 못다'로 '예쁘지 않다'를 '안 이쁘다' 형태로 주로 사용한

다. 이 역시 짧고 함축성 짙은 말을 좋아하는 부산 사람의 기질이며 '부산성'을 나타내는 좋은 예라고 볼 수 있다.

## 바다를 건너온 부산 사투리

어릴 적 우리가 뛰어놀았던 동네 골목에서 놀이를 하기 전에 꼭 팀을 나누게 되어있었다. 이때 우선 두 팀으로 나눌 경우, 손을 뺀어 손등과 손바닥으로 나누는 방식이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한 방식이다. 그런데 이 구호 안에는 순수 한국어도 존재하고 우리가 알기 어려웠던 바다 건너 일본에서 건너온 말이 많이 감추어져 있다. 이 책에서는 한국의 사투리 권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왜냐하면, 비단 부산 사투리에만 일본어 투가 남아 있는 것은 아니고 전국에 일본어 투가 각기 다르게 남아 있기에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어의 사투리 구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투리 구획은 여러 학자에 의해 주장되어왔다. 우선 초창기에 사투리 구획을 설명한 것은 일제강점기 이극로(1932)가 ‘조선말의 사투리’에서 관서방언, 관북방언, 중부방언, 호남방언, 영남방언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이후 오구라 신페이(小倉進平)는 제주도 사투리를 포함하여 6개 권역으로 구분하였다. 평안도방언, 함경도방언, 경기도방언, 전라도방언, 경상도방언, 제주도방언으로 구

분하였다. 오구라는 일본인이지만 한국어 사투리 구획을 구체화한 연구자이다. 해방 이후 이승녕은 평안도방언, 함경도방언, 전라도방언, 경상도방언, 제주도방언, 중부방언의 6개로 구획하였다. 다만 오구라와는 조금 다른 6개 구획 구분법이지만, 큰 틀에서 오구라의 구분법과 다르지 않다. 현재는 한국방언학회에서 구분한 사투리 구획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역시 오구라 신페이의 방언 구획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 구분법은 다음과 같다.

- 동북방언(육진(함북)방언, 함경도방언)
- 서부방언(평안도방언)
- 중부방언(황해도방언, 경기방언, 충청도방언, 영동방언)
- 동남방언(경남방언, 경북방언)
- 서남방언(전라도방언)
- 제주방언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현재 남한을 사투리 권역으로 구분하면 중부방언, 동남방언, 서남방언, 제주방언의 4개 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4개의 주요지역에서 사용되는 편 가르기 구호는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특히 부산이 속한 동남방언의 경우, 크게 생각해 볼 때 ‘데텐찌(手天地)’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특이하게 하늘과 땅을 의미하는 한자 ‘천지(天地)’의

일본식 발음 ‘덴디’, 또는 ‘젠디’의 형태가 훨씬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테(手)’의 발음이 사투리 화되어 ‘젠디’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는 일제강점기 이후 전파되었다고 예측되는 ‘테텐찌’가 가장 최신의 어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테텐찌’의



편 가르기 부산 지역 구호 ‘덴디’, ‘젠디’

어형이 전국으로 전파되었으며 시간이 지나 일본어인지 한국어인지 구분조차 되지 않는 사투리 형태로 자리매김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서남방언에서 주로 사용되는 ‘우라우문테’ 또는 ‘우라무라떼’의 경우 안(속)과 바깥(겉)을 나타내는 ‘우라오모테(うらおもて:裏表)’의 발음 바뀐 형태가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서남방언 중 ‘소라이소라이’를 사용하는 곳은 일본어로 하늘을 의미하는 ‘소라(そら:天)’의 발음을 흉내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편 가르기 놀

〈중부:경기〉 서울: 데덴찌 / 인천: 얹어라 뒤집어라 / 평택: 얹어라 젓혀라  
 〈중부:영동〉 강릉: 편~짜 편자 편!짜! / 태백: 덴보, 아래 위  
 〈중부:충청〉 충주: 데덴찌 / 대전: 우에시다리 / 논산: 흰둥이 검둥이 / 부여: 이거~ 이거! 오니뽑기

〈동남:경북〉 포항: 타안타안비  
 〈동남:대구〉 대구: 덴지시 오렌지씨 되는대로 먹자 성내면 뺨다  
 〈동남:부산〉 부산: 덴디, 젠디 /  
 〈동남:경남〉 진주: 덴찌보 / 김해: 젠디, 하늘과 땅

〈서남:전라〉 전주: 우라우문테 /  
 〈서남:전라〉 순천: 우라무라떼 / 광양: 소라이소라이에취  
 〈서남:광주〉 광주: 편뽑기 편뽑기! /

〈제주〉 제주: 하늘과 땅이다 일러도 모르기

이구호 이외에도 별칙게임에서 사용되는 사투리가 있다. 가운데손가락으로 이마를 때리는 ‘딱밤’의 경우에도 부산 지역에서는 ‘땡꼬’ 또는 ‘땡꼬’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사투리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바다를 건너온 말일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바다를 건너 부산 사투리가 된 형태이다. 일본어로 ‘이마빼기’ 또는 ‘마빡’에 해당하는 어휘는 ‘오데코(おでこ)’이다. 여기서 ‘오데코(おでこ)’의 ‘오(お)’는 미화어(美化語)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래서 ‘오(お)’를 빼고 설명하자면 ‘데코(でこ)’만 남는다. 이는 결국 부산에





떡밥에 해당하는 부산 사투리 '땡꼬', '땡꼬'

서 센 발음으로 변화하여 '땡꼬', '땡꼬'와 같은 형태로 남았다고 볼 수 있다.

이외에도 바다를 건너 부산 지역에 남아 있는 사투리는 다수 존재한다. '삽'을 뜻하는 '수굽포' 역시 일본식 외래어 표현 '스콥(スコップ)'에서 전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네덜란드어 'schop'가 일본에 전래 되었고 이것이 다시 일제강점기에 한국으로 재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수굽포'의 경우 경상방언에서 주로 그 쓰임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변종의 말들이 섞인 부산 사투리, 이 또한 부산 사투리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 기타 부산 사투리

### '정구지' 좀 더 주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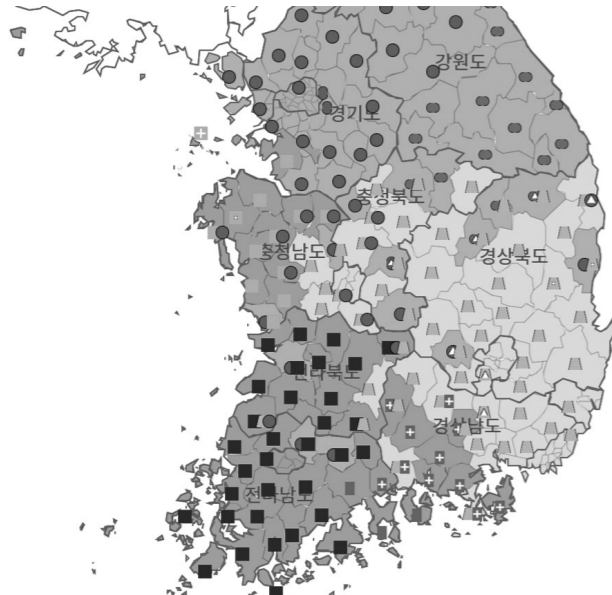
부산에서 돼지국밥을 먹게 되면 반드시 함께 등장하는 두 가지 식재료가 있다. '정구지'와 '새우젓'이다. 원래 북한 음식이었던 순대국밥을 피란민이 돼지국밥으로 변형시켜 먹기 시작한 이 국밥에 빠져서는 안 될 재료가 부추였다. 이렇게 부산을 대표하는 음식에 항상 등장하는 '정구지'는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부산 사투리라고 볼 수 있다.

표준어형인 '부추'의 방언형을 '부추' 계열, '술' 계열, '정구지'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전국 분포로 살펴보다도 매우 선명하게 나타나고, 경남방언 지역권만 살펴보다도 깔끔하게 정리된다. 이렇게 '정구지'는 부산을 포함한 경남 사투리의 전형을 매우 잘 나타내는 단어다.

'부추' 계열- 부추, 부초, 푸추, 푸초

'술' 계열- 술, 세우리, 소불, 소플, 술, 즐

'정구지' 계열- 정구지, 정구치



'부추'의 전국 사투리 어형 ©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

국립국어원의 '지역어 종합 정보 사이트'에서 실제로 표준어형 '부추'를 입력해보면 사투리의 다양한 형태가 표시된다. 우선 '부추' 계열은 경기, 강원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충청남북과 기타 일부 지역에서 그 세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술' 계열 방언은 원래 '빙'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술'형은 '빙'이 탈락한 형태이고, '소불'형은 '빙'이 'ㅂ' 또는 'ㅍ'으로 변한 형태로 볼 수 있다. '술'형은 전라남북을 중심으로 분포되고, '수불'형은 경남 서부와 전남 동부에 나타나는 형태로 볼 수 있다. 마

지막으로 '부추'가 경남 서부 지역에서는 '소뿔'로 나타나지만 부산을 포함한 동부 지역에서는 뚜렷하게 '정구지' 계열로 나뉜다.

### '펼쳐보다' vs '짜려보다'

부산 사투리 중에 매우 강력하지만 임팩트가 있는 '펼쳐보다'라는 어휘가 있다. 가끔 텔레비전 예능프로그램에도 등장하여 화제가 된 이 어휘는 어감상 매우 강렬하고 심지어 비속어처럼 보인다. 이 사투리를 표준어로 바꾸어 본다면 '짜려보다'에 해당한다. 이를 표준어와 부산 사투리의 뉘앙스를 비교해보기 위해 50대 남성 인터뷰를 해보았다.

〈50대 부산 출신 남성 인터뷰〉 2022. 02. 17.

'펼쳐보다'는 '짜려보다'와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는 '짜려보다'가 '분노'의 의미가 많이 개입되었다면, '펼쳐보다'는 '못마땅함'의 의미가 더 많이 포함된 것 같아요.

인터뷰 결과 '펼쳐보다'와 '짜려보다'는 의미상 비슷하

지만 ‘짜려보다’의 어감보다 ‘꼴쳐보다’에는 못마땅함의 느낌이 훨씬 많이 담겨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듯 부산 사투리에는 표준어가 담당하지 못하는 미묘한 느낌 차이를 전달할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한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사람의 감정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사투리의 역할이고 존재가치인 것이다.

## 부산 사투리의 이미지 변화

세상에서 바라보는 부산 사투리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할까? 영화 <친구>에서 등장한 것처럼 부산 사투리는 남자의 언어라는 느낌이 강했다. 투박하고 거칠고 배려보다는 자기주장이 강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이러한 부산 사투리 이미지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마스크에 등장하는 부산 출신의 여러 예능인 그리고 긍정적으로 지방의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느낌들이 그러한 것이다.

최근에는 부산 사투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및 리뷰가 많아졌다. 바야흐로 부산 사투리 전성시대이다. 사실 여태까지는 부정적인 것부터 긍정적인 이미지까지 다양하게 존재하였다. 다음 장 ‘미디어와 부산 사투리’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구수하다’, ‘무섭다’, ‘무뚝뚝하다’, ‘참신하다’, ‘간결하다’ 심지어 ‘멋있다’, ‘있어 보인다’까지 여러 취향에 따라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처럼 사투리에 대한 인식 이미지 그리고 위상은 세월과 함께 변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로소 사투리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어느 시기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감내하면서도 여태껏 유지되어왔다. 다시 말해 사투리의 위상은 조금씩 변모해가고 있다. 그래서 사투리의 특징을 사투리의 사용 현황,

표준어화 진행 정도, 사투리와 관련된 사회적 평가와 활동, 사투리의 성격과 기능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해보겠다.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전후	산업화	현재	미래
사투리의 사용현황	활발/쇠퇴	활발	보통	쇠퇴	더 쇠퇴
사투리의 사회적 평가	낮음			보통	
사투리 관련 활동	교정			보호 활동 시작	
사투리의 성격	시스템(체계)			스타일	
사투리의 기능	의사소통			상대방 확인 및 발화 태도 표시	

사투리의 위상변화

일제강점기 및 한국전쟁 직후, 산업화 시대까지는 사투리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았다. 그러나 현재 표준어 주류 사회가 되면서 사투리는 하나의 표현 스타일로 바뀌는 중이다. 물론 사투리의 사용 현황으로 볼 때는 더 쇠퇴하고는 있다. 왜냐하면 절대적으로 사투리 화자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할 때는 표준어 체제를 유지하면서 감정표현이나 문말 표현 등에 사투리를 섞어 가면서 화제를 이끌어 간

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들이 현재의 사투리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표준어와 사투리를 적절하게 섞어 말하면서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를 밀접하게 하는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표현(스타일)의 일부였던 사투리가 ‘표준어’라는 복장에 어울리는 또 하나의 아이템이 되어 가고 있다. 예를 들어 옷에 브로치를 달아 놓으면 사람들의 시선은 옷이 아니라 브로치라는 아이템에 집중하게 된다. 이렇게 주위를 집중시키게 만드는 효과를 가진 사투리의 아이템화(엑세서리화)가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다고 일본의 방언학자인 고바야시 다카시(小林隆) 교수는 이야기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투리는 표준어처럼 지역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시대를 넘어섰고, 또 하나의 표현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단계까지 뛰어넘어, 현재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아이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사회 사투리의 위상 변화도 최근에는 감지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표와 같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투리의 모습도 점점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는 표준어를 쓰는 것이 당연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사투리의 쇠퇴는 어떻게 보면 역행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그렇지만 사투리의 엑세서리화

(아이템화) 또는 사투리의 코스프레(코스튬 플레이 Costume Play : 해당 지역 출신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투리를 흉내 내거나 이야기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일컫는다)는 이러한 시대 사투리의 희소가치를 유감없이 발휘하면서 주목받고 있다. 바꿔 생각해 보면 현대 사회는 표준어가 사투리를 응원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선도해 나가는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사투리가 살아남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사투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일 수 있으며 충분히 보람 있고 매력적인 일이다.

# III

## 경제적 재화(財貨)로서 부산 사투리

언어경관 속 부산 사투리

사투리의 언어경관

부산 사투리, 상품으로 다시 태어나다

부산 사투리, 활용의 한계는 어디인가

미디어 속 부산 사투리

# 언어 경관 속 부산 사투리

‘언어경관(Language Landscape)’이라는 말은 일반인에게는 매우 생소한 어휘다. ‘경관(Landscape)’이라는 말을 들으면 눈 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상상한다. 그렇다면 ‘언어경관’이란 무엇일까? ‘언어경관’은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 즉 눈 앞에 펼쳐진 교통표지판, 간판, 픽토그램 등과 같이 눈으로 읽는 모든 언어표시를 말한다.

외국이나 새로운 지역에 방문하게 되면 이러한 언어경관의 모습 때문에 내가 외국에 와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되고 또 이국적 느낌을 받게 된다. ‘언어경관’ 속 사투리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활발히 진행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지역문화를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 사투리를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간판이나 표시가 눈에 자주 들어온다. 다음 사진은 부산 도시철도의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에 사용된 캐치프레이즈이다. 이는 부산시민을 대상으로 사투리를 활용하여 보다 친근하게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는다. 간단하지만 뇌리에 남는 문구로 부산시민이라면 누구나 반갑고 쉽게 알아듣게 된다. 거꾸로 외지 사람에게도 부산만의 임팩트를 심어주는 모습으로 사투리를 활용한 언어경관의

모습이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부산도시철도 공식 블로그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또 불법 촬영을 막기 위한 홍보영상으로 '마! 찰카하다 철렁한테이'라는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긴 영상으로 사투리를 통한 공익성을 담보한 좋은 사례라 볼 수 있다. 이 캐치프레이즈에도 전지전능 만능 사투리 '마!'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부산만의 매력을 발산하기 위해 부산 여기저기 많은 맛집 간판들이나 상점가게 간판에 친근한 사투리가 등장한다.



부산 사투리를 활용한 음식점 및 상점

'오이소! 고르소! 드이소!'와 같이 부산 사투리 구호로 손님을 유혹하기도 하고, '바로무라'와 같은 식당 이름처럼 친근함으로 외지인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특히 외지인들이 부산의 향토 음식을 찾고자 할 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고 시각적 효과를 제공한다. 식당뿐만 아니라 '부산바다 사카이소'와 같이 부산역에 부산을 담아갈 수 있는 사투리 상품 가게도 최근에는 등장하고 있다.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 사투리의 언어경관

사투리(지역어, 방언)로 구성된 언어경관을 ‘사투리 언어경관’이라고 한다. 이노우에 후미오(井上史雄) 교수는 사투리 상품(선물), 사투리 네이밍도 넓은 의미에서 언어경관의 관찰 범위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투리 언어경관의 범주 안에는 특정 사투리로 표현된 게시물, 광고 홍보물, 이정표 및 경고 사인뿐만 아니라 사투리 상품과 사투리 네이밍 등 이러한 지역어로 구성된 모든 언어경관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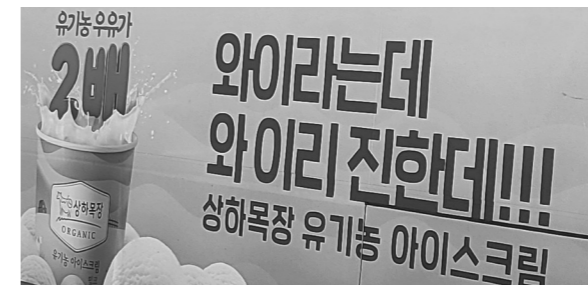
‘사투리 상품’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 물건으로 존재하며, 대부분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한편 ‘사투리 네이밍’은 사투리를 이미지 메이킹을 위해 의식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상품명이나 상점명, 시설의 명칭, 행사명 등에서 사용되는데 최근 사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상품의 캐치프레이즈나 해설에도 사투리가 사용되고 있어 사투리 언어경관의 범주에 모두 포함시킬 수 있다. 즉 사투리 언어경관이 사투리 상품으로 세상에 나왔을 때 사투리를 활용해서 만들어지는 경제적 활동, 다시 말해 경제적 재화(財貨)로서의 가치를 갖는다. ‘사투리를 활용한 경제산업’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즉 사투리의 문화적 특성과 차이를

활용한 ‘사투리 언어경관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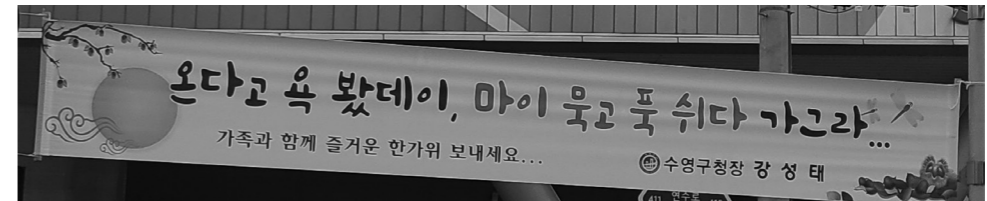
부산 사투리를 활용한 컵 슬리브

다른 하나의 사진은 좀처럼 보기 힘든 광고이다. 전국 각지에서 볼 수 있는 우유 아이스크림 홍보 배너인데 부산을 꼭 집어 선택적 집중광고를 한다. 이는 부산시민을 위함이기도 하지만 주위환기 효과도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우유 아이스크림의 큰 시장으로 보고 공격적 마케팅을 하는데 인지적 가치를 염두하고 부산 사투리를 활용하였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인지적 가치의 사투리 현수막

김덕호 교수에 따르면 이노우에 교수의 방언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인지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로 설정되어 있지만, 상황에 따라 ‘인지적 가치’를 ‘언어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로 세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사투리 언어경관 상품 중에 ‘구매 가능한 상품’과 ‘구매 불가능한 상품’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인지적 가치 상품’과 ‘정서적 가치 상품’으로 세분하고 있다. 여기서 ‘인지적 가치의 사투리 언어경관 상품’은 방언의 인식과 시장 가치에 대응하며, ‘정서적 가치의 사투리 언어경관 상품’은 지역어에 대한 심리적 측면, 즉 사투리를 통한 ‘애향심’, ‘애착심’과 ‘충성심’ 고취 등에 목적을 둔 경우로 보고 있다. 사진처럼 명절만 되면 언제나 등장하는 사투리 현수막의 그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온다고 옥 봤데이, 마이 묵고 푹 쉬다 가그라’와 같이 매년 등장하는 사투리 플래카드이다. 어쩌면 이러한 사투리 현수막이 없다면 고향에 갔을 때 웬지 모를 서운함이 몰려올 수도 있을 것이다. 사투리 현수막을 내건 고향의 정치인이나 그것을 내심 기대했던 고향을 찾는 부산 출신의 경우 서로의 정서적 교감이 통한 결과물이 아닐까 싶다.



정서적 가치의 사투리 현수막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두 가지 가치에 대한 뚜렷한 변별 기준은 동일한 사투리 언어경관을 두고서 다른 사투리로 호기심을 가지고 볼 경우는 ‘인지적 가치’가 작용한 것이고, 자기 사투리로 애착을 갖고 볼 경우는 ‘정서적 가치’가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김덕호 교수의 내용을 토대로 사투리 언어경관 상품을 다음과 같이 가치 분류를 나누어 볼 수 있다.

구매가능 여부	가치분류	지역
구매 불가능	정서적 가치	홍보-간판, 안내문, 슬로건, 포스터, 현수막, 전시회, 경연대회, 교육프로그램, 벽화, 거리 명칭, 신문기사
구매 가능	인지적 가치	도서류-책, 방언사전, 사투리 지도 상품류 - 공산품, 기념품, 식품, 술 상품명-신용카드, 공산품
	정서적 가치	방송(공중파)-다큐멘터리, 드라마, 영화, 연극, 공연(연주회), 노래, 앨범 제목

사투리 상품의 유형 분류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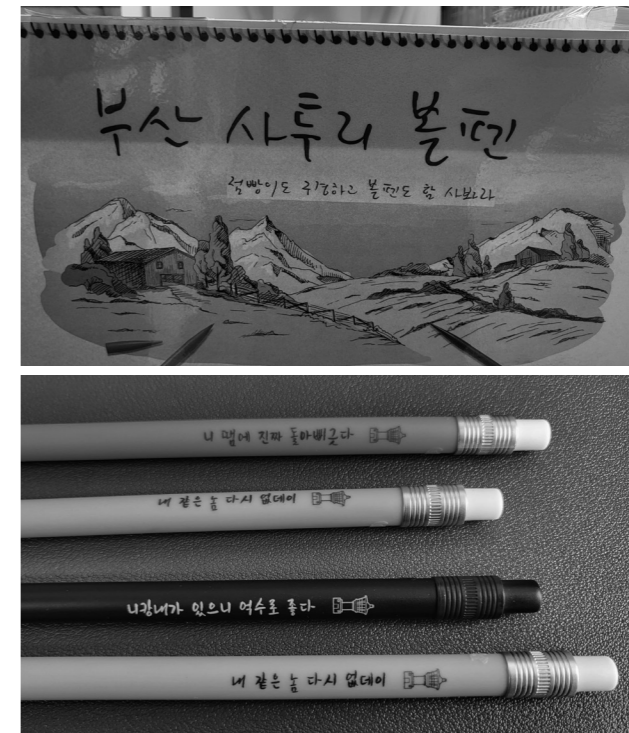
언어경관의 경제적인 원리가 사투리를 활용한 언어경관의 가치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언어 의식이나 정체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의미에서 언어경관은 일반 시민의 언어 의식 및 태도 변화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언어경관의 대범주 안에 사투리 언어경관 상품도 포함될 수 있음을 여러 학자가 밝혔고, 필자 또한 사투리 언어경관의 가치는 크게 인지적 가치와 정서적 가치가 있다고 동의하는 바이다. 이렇게 사투리의 소중한 가치를 파악함으로써 자신의 말과 다른 사투리에 관심을 두게 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고 보람된 일이다. 사투리의 숨겨진 매력과 보석 같은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활용하여 가까운 곳에서 사투리를 활용한 언어경관 상품을 자주 접하고 싶다.

## 부산 사투리, 상품으로 다시 태어나다

부산 사투리는 지역을 살리는 효자상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사투리로 쓰인 엽서나 마그네틱, 손수건 등의 전통적 상품에서 벗어나 최근에는 볼펜이나 유리컵 등 다양한 제품이 팔리기 시작하였고, 점점 더 다양한 상품군으로 확대되고 있다.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부산 용두산공원 다이아몬드타워 점빵 내 사투리 상품

기존의 획일화된 사투리 마그네틱 상품 종류에서 벗어나 컬렉션 가능한 부산 사투리 100선의 마그네틱이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의 유명 관광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산 사투리 마그네틱을 팔고 있다. 특히 한 개씩 모아서 100개의 부산 사투리 어휘를 완성하는 형태로 부산 사투리의 매력을 어필하고 있다. 그 와중에 한눈에 들어오는 사투리는 앞서 설명한 '부산성'을 대표하는 한 단어 사투리다. '마', '쫘', '도', '와'와 같이 함축성이 강한 사투리, 그리고 비교적 짧은 어휘로 만들어진 사투리가 눈에 띈다. '가가', '내나', '누야', '기가', '영판' 등과 같은 어휘들도 부산 사투리의 대표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부산 사투리' 100선 마그네틱

또 사투리의 대중화에서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SNS의 확산과 더불어 MZ세대에서 각광 받는 온라인 사투리 이모티콘의 등장이다.



사투리를 활용한 다양한 이모티콘 © 카카오톡 이모티콘

대화보다 텍스트 메시지의 활용빈도가 높은 젊은이에게 이러한 사투리 이모티콘은 신선함과 새로운 화제성





사투리 관련 상품 ©보네티 홈페이지

을 갖고 있다. 그림과 같이 사투리 이모티콘이 대유행하고 있다. 부산 사투리의 무한 확장 가능성을 비주얼 콘텐츠 및 사투리를 활용하여 흥미로운 교감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생업과 연계하여 바람직한 사투리의 활용 예가 있다.

이탈리아어 ‘보나베티(Bon appetit)’처럼 외국 느낌이 나는 사투리의 어감으로 성공한 사업상품의 좋은 예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보네티’는 ‘보넨다’의 경상도 방언이다. ‘마음을 보넨다’, ‘과자를 보넨다’와 같이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어휘로 ‘보넨다’라는 네이밍을 한 후에 여러 가지 사투리 파생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 〈보넨다〉

‘보넨다’는 선물과자점의 브랜드명이다. ‘보넨다’의 경상도 사투리로 ‘마음을 보넨다, 과자를 보넨다’ 등의 감사를 나타내는 사연을 대신 전달하겠다는 함의를 담은 브랜드 이름이다.

#### 〈모꼬〉

‘모꼬’는 ‘보넨다’의 캐릭터이면서 로고인 토끼이다. 시그니처 토끼 모양 케이크로 맛을 표현하며, ‘먹고 또 먹고’ ‘이게 머꼬’(가볍지만 반갑데 놀라는 느낌의 “이게 뭐야?”의 사투리)처럼 이중적 의미를 갖게 네이밍을 하였다.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 부산 사투리, 활용의 한계는 어디인가

### 외국인 커뮤니티에서 활용된 부산 사투리

부산에서 활동중인 일본인 커뮤니티에서도 부산 지역의 사투리를 활용하여 네이밍하고 모임 활동을 하고 있다. '와보이소 부산(わぼいそ釜山)' 그리고 '부산인가배(釜山 in 珈琲)'가 그 예이다.

영어나 한자로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지만 얼핏 보면 사투리의 뉘앙스를 살린 네이밍이다. 외국인 커뮤니티에 서조차도 한글로 부산 사투리의 어감을 담으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이렇듯 부산에서 사투리의 활용은 다양한 측면에서 외연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 ‘인싸’는 사투리를 사랑한다

최근에는 사투리를 향한 새로운 시선의 변화가 느껴지고 있다. 사투리는 이제 따뜻한 말이 된 것이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 제목처럼 사투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난다. 예전에는 사투리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 되어 오다가 현재

는 인플루언서, 이른바 ‘인싸’를 중심으로 사투리가 전방위적으로 침투되고 있다. 기분 좋은 ‘잠식’이란 말이다. 예를 들어 소주 패키지에 적용된 사투리의 사용도 눈에 띈다. 강송희, 송지성(2015)의 연구처럼 해외 사투리 상품의 활용 사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 것도 있다.

첫째, 사투리를 즐겁게 배울 수 있고 교육적으로 활용 가능한 사투리 콘텐츠가 다양화되고 있었다.

둘째, 관광객들도 편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사투리를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셋째, 지진 피해 및 복구와 관련하여 아이디어로 사용되는 일본의 사투리 활용도 조사되고 있다.

현재는 말 그대로 사투리가 대세인 시대이다. 드라마, 영화와 같이 브라운관 그리고 스크린을 넘어서 사투리와 연관된 콘텐츠가 매일 같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투리의 구수하고 친근한 매력이 모든 콘텐츠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과거에는 촌스러움을 나타내는 도구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MZ 세대를 비롯해 인싸들 사이에서 사투리의 전득한 매력이 대중을 사로잡으며 주요 코드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영화나 드라마 시장을 넘어 SNS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음성 출시, 라인 스티커 등 사투리와 관련된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외국의 사투리 활용 실태를 살펴본 결과 더 다양한 형태로 이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아직 사투리를 그저 재미의 요소로만 생각하여 사투리를 활용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민할 시간이 된 것 같다.

### 사투리 팔아서 돈을 벌다

인공지능 기업 솔트룩스는 국립국어원과 공동으로 사투리를 포함한 일상회화를 빅데이터로 만드는 ‘일상대화 말뭉치 구축’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 최종목표는 수집된 코퍼스(말뭉치) 데이터가 방송에서 쓰이는 표준어보다 실제 지역색이 묻은 사투리 대화로 사람과 유사한 수준의 회화가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개발을 목표로 삼았다. COVID 19로 인하여 경기침체 및 소득 감소로 많은 국민이 지쳐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투리를 들려주는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가 있어 당시 화제가 되었으며 그것이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의 하나로 솔트룩스가 주관한 ‘한국어 사투리 AI 데이터’ 구축 사업이었다.

기업 활동에 일반 대중이 참여하는 크라우드소싱(사회적 인력 활용) 방식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동원 인력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자율적으로 모집하여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투리를 쓰는 모든 이에게 사투리를 팔아 돈을 벌 수 있는 문은 열려있던 것이었다. 이처럼 사투리는 이제 돈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나의 무형적 재산인 사투리를 녹음해 주는 것만으로 돈을 벌 수 있으며, 사투리에 대한 문화적 가치가 재발견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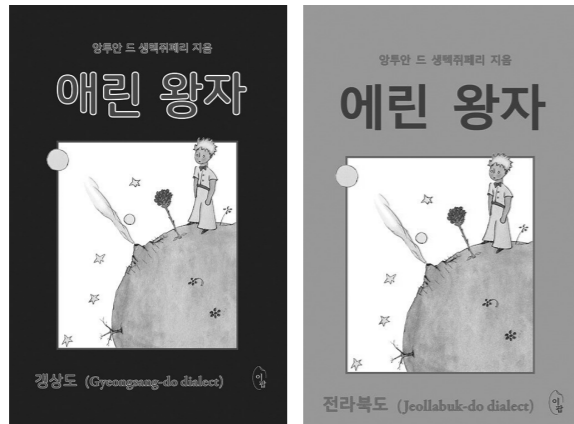
사투리 제공자 모집 광고 ©솔트룩스



## 사투리로 읽고, 듣는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사투리를 팔아서 돈을 버는 시대에 살고 있다.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는 이미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세계적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워낙 유명한 동화책이기도 하고 주목도가 높았던 이 책은 한국의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되고, 오디오북으로까지 출간되며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경상도 버전의 『어린 왕자』, 그리고 2021년에 출간된 전라도 버전의 『어린 왕자』가 있다. 이 책들은 독서 모임이나 각종 커뮤니티에서 읽히기도 하고, 현재는 오디오북을 통해 일반 독자에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



어린왕자의 경상도(어린왕자) 전라도(어린왕자) 버전 책 표지

사투리로 재해석된 『어린 왕자』는 언어 실험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세월에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동심을 소환한다고 볼 수 있다. 경상도 사투리로 번역한 역자는 원작의 감동을 전달하기 위해 언어 너머 프랑스어와 영어, 표준어를 거쳐 오로지 경상도 사투리로 원문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역의 정취가 담기고, 개성이 넘치는 사투리로 동심을 표현한 어린왕자를 만날 수가 있던 것이었다. 또 발음에 충실한 사투리 표기로 맞춤법을 일부러 파괴한 일탈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내용을 잠시 발췌해서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내가 기릴 수 있는 가 초상한테, 이기 최선이다.

아무튼가네 나도 놀래가 눈 빨시모 안 쳐다봤겠나.

분미 여는 마을서도 수만 리 떨어진 텐데 아는 길 잃은 아 맹키로도 안 비고 디비지도 않고 배 곁은 아로도 안 비고 목말라 비지도 않은 게 아가 겹도 안 묵고 희한한 기라.

사막 한가분데 길 잃은 얼라가 아인 기라. 기운 내가 겨우 입 띠고 이래 물 았지.

<중략>

사람 코빼기도 안 비는 허허벌판 사막에 있다보이 바다 가분데서 펫목 타고 동등 흘러가는 난파선 우에 뱃사람보다 훨씬 외로븐 기라. 어슴푸레 해 뜰 때쯤 났을랑가 웬 얼라가 널 깨아가 시곗했다 아이가.

“저기…… 양 한 마리만 기레도.”

“뉘라카노.”

“양 한 마리만 기레 달라는데.”

마 뒷골이 서늘한 기라.

그때 눈을 실 떠보니까 쪼매난 아가 내를 돌바져라 보고 있네.

여그 초상화 있데이, 내가 봐도 이 그림이 모델로 기린 것 중에 켈로 개안은 기다.

본문 내용을 살펴 보면 ‘그리다’를 ‘기리다’로 발음하거나, ‘(무서워서 또는 깜짝 놀라서) 혼났다’를 ‘시곗했다’로 표현하거나, 문말 표현에서 ‘~한 것이다’를 ‘~한 기라’, ‘그 아이’를 ‘가’로 나타내는 등 부산 사투리의 성조가 더해지면서 읽는 상상을 해보면 훨씬 더 맛깔난 부산 사투리 동화책이 된다. 이처럼 부산 사투리는 기존의 유형 상품에서부터 무형의 자산으로까지 더욱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미디어 속 부산 사투리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최근 콘텐츠 시장에서도 지역의 언어문화를 소개하며 제작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아지고 있다. 콘텐츠의 집중도 면에서 현지의 말, 즉 지역 사투리의 활용으로 깊은 몰입도를 갖게 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애플 TV+’의 <파친코>도 부산의 사투리를 활용하였는데, 글로벌 OTT 플랫폼을 활용하여 콘텐츠가 유통되면서 부산 사투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내수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마켓까지 확대되는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 매스미디어의 등장과 사투리

미디어에 비친 사투리의 모습은 오랫동안 전형적이었다. 바로 표준어에 비해 어딘가 ‘급이 떨어지는’ 말로서의 사투리이다. 비단 이 책에서 살펴보는 부산 사투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는 근대 미디어의 탄생 그 자체를 배경으로 한다. 근대의 미디어는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매스(mass)’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흔히 말하는 매스미디어, 대중매체의 등장이다. 그리고 인쇄 및 제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된 신문은 근대 미디어의 시작을 알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문은 국경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의 언어, 즉, 표준어로 다름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건들을 ‘나의’ 사건으로 공유하게 했다. 이 과정을 통해 표준어가 보편화 되었으며, 그만큼 사투리는 설 자리를 잃어 갔다.

라디오와 TV가 보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정보를 전달하면서 매스미디어를 통한 표준어의 확산은 더욱 빠르고 강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표준어와 사투리는 ‘보편 vs 특수’라는 구도에 놓이게 되었고, 사투리의 경우 단순히 특수한 언어를 넘어 일탈, 교양 없음, 세련되지 못함과 같은 꼬리표가 붙었다. 물론 이러한 공통적인 꼬리표 외에도 개별 사투리마다 고유의 특정한 꼬리표가 따라다니기도 하는데, 그러한 꼬리표가 붙은 사투리의 모습이 미디어 속에 반영된다. 사극에서는 머슴, 현대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에서는 파출부라 불리던 가사도우미가 유독 충청도 사투리를 많이 쓰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부산 사투리의 경우는 어떠할까?

## 그 시절, 아버지의 부산 사투리

TV나 영화 속에서 부산 사투리를 사용하는 단골은 아버지이다. 그것도 가부장적인 아버지. 그들은 권위적이고 무뎌뎌하며 강한 에고(ego)로 가족들과의 관계가 순탄치 않다. 많은 경우 술 마시는 일이 일상이고 과묵하여 말이 짧고 가족들에게는 명령조인데, 그때 사용하는 말이 부산 사투리, 조금 넓게 보면 부산 사투리를 포함하는 동남방언이다.

벌써 25년도 더 된 드라마 중에 <형제의 강>이라는 작품이 있다. 이 작품은 당시의 부산방송(현 KNN)이 주도하여 SBS와 공동 기획한 것으로 1960년대부터 1980년대를 배경으로 산업화 시대 요동치던 가족사를 다루는 내용이다. 극에서 중심이 되는 가족의 가장인 서복만은 집안의 경제 상황은 돌보지 않고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는 한편, 장남 중심적인 사고가 강해 장남에게는 찢찢매며 나머지 가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캐릭터이다. <형제의 강>의 배경 자체가 밀양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배우가 동남방언을 사용하지만 서복만은 유독 억센 사투리를 사용한다. 그것은 고함에 가깝기도 하며 서복만의 가부장적 특징을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물론 부산 사투리를 쓰는 아버지가 가부장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들은 때때로 겉으로는 권위적이고 무뎉뎉하지만, 속정이 깊은 존재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처럼 표현하는 것에 서투른 아버지가 나름의 애정을 담아 툭 던지는 말이 부산 사투리인데, 다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말의 길이가 짧고 함축적이며 명령조로 들리기도 한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투박하고 불친절하며 그 결과 상대방에게 잘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리고 그 시절, 아버지가 쓰는 말로서 부산 사투리는 남성적이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힘든 방언으로 미디어 속에 존재해 왔다. 경상도 남성이 귀가 후에 하는 말은 딱 세 마디(아는? 밥 도, 자자!) 라는 국민 유머와 시너지 효과를 보이며 말이다.

### ‘행남’의 부산 사투리

미디어 속 부산 사투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2001년 개봉한 영화 <친구>이다. 이 영화는 197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하여 조폭 두목의 아들인 준석과 장의사의 아들 동수, 평범한 집안에서 자란 상택, 밀수

업자의 아들로서 분위기 메이커인 중호라는 친구 4인방의 이야기이다. 어릴 때부터 친구이지만 학창 시절을 거치며 성인이 되어서는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고 이들의 관계는 결국에는 파국을 맞는다. 영화 <친구>는 부산이 배경인 만큼 러닝타임 내내 부산 사투리가 사용된다.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내뱉은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내가 니 시다바리가?’라는 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패러디가 될 만큼 유명하다. 그런데 영화 속 부산 사투리의 모습은 바로 이 영화 <친구>의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영화 <친구> 포스터

영화 <친구>는 단지 부산 사투리를 전면에 내세웠을 뿐 아니라 ‘행님’, 다른 말로 하자면 조폭의 언어로서 부산 사투리가 대중매체에 본격적으로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준석과 동수를 중심으로 흘러가는데 이들은 성인이 되어 조폭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많은 명대사가 그러한 맥락에서 탄생하였다.

예를 들어 ‘니가 가라 하와이’, ‘고마 해라, 마이 무따 아이가’가 대표적이다. 영화 <친구>에서 부산 사투리는 여러 형태의 폭력과 함께 등장하였고, 이는 부산 사투리의 ‘남성성’이 조폭을 통해 극대화되는 과정이기도 했으며, 이후 많은 영화에서 조폭은 부산 사투리를 사용하게 되었다.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에서 조폭은 단골 등장인물이 되었으며, 영화의 배경이 부산이 아니어도 조폭은 부산 사투리를 사용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까지도 이어져 2010년대 이후만 하더라도 영화 <신세계>, <범죄와의 전쟁>, <뜨거운 피>처럼 ‘행님’들이 사용하는 부산 사투리가 미디어를 통해 계속 재생산되고 있는 모습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조폭을 비롯한 범죄자를 잡는 형사들도 부산 사투리를 쓰는 사람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부산 사투리를 구사하는 배

우가 가장 흔하게 말하는 배역이 조폭과 형사가 아닐까 싶다. 어둠과 빛을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부산 사투리. 예를 들어 2006년 개봉한 영화 <사생결단>은 부산을 배경으로 마약 판매상과 그를 쫓는 강력반 형사의 이야기로 감천항, 부산대교 등에서 촬영하였다.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이 니만큼 범죄자도 형사도 부산 사투리를 사용하는데 이 영화에서 찰지게 ‘정치 썩이네, 그자?’를 내뱉으며 강력반 형사를 연기한 배우는 다른 영화에서는 ‘드루와, 드루와’를 외치던 조폭이다. 그런데 형사라는 직업에 투영된 부산 사투리의 이미지는 결국 조폭과 마찬가지로 거칠고 험한 그러나 거기에 의리라는 그들만이 사는 세상의 양념을 더한 남성의 언어가 바로 그것이다.

## 부산 사투리의 변화

이처럼 제법 오랫동안 TV나 영화에서 접할 수 있는 부산 사투리의 화자 하면 조폭과 형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격한 언어 사용 때문에 뇌리에 쏙 꽂혀서일 수도 있고 명대사를 많이 생산한 흥행 영화 속에서 그렇게 비추어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다. 다만 이는 미디어 속에 나

타난 부산 사투리가 어디까지나 비일상적인 언어였음을 말해준다. 보다 일상적인 배경에서 때때로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부산 사투리를 사용하기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장년층 이상 남성의 언어로서 제한적인 부분이 많았다. 이러한 미디어 속 전형적인 부산 사투리의 모습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2010년대 들어서이다.

왜 2010년대일까? 부산 사투리를 비롯하여 미디어 속에서 사투리가 다뤄지는 모습에 대한 비판은 꾸준히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문제 제기만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의 생각에도 관성의 법칙은 작용하는 듯싶다. 머릿속에 한 번 새겨진 이미지를 바꾸는 것은 제법 어렵고, 그 이미지를 바탕으로 콘텐츠가 재생산되어왔다. 부산 사투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오히려 변화를 가져온 것은 기술이었다. 미디어를 둘러싼 기술의 변화가 그 내용물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2010년대 초반은 2000년대 후반 개국한 이른바 케이블 방송사가 날개를 달기 시작한 시기로 기존의 지상파 드라마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차별화된 시도를 한 작품들이 등장하였다. 케이블 방송사들이 차별화된 시도를 했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상파에서 하지 않은 것, 할 수 없는 것을 해야 했

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작업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열악한 제작 환경(제작비 등)에서 비롯된 아이디어가 전화위복으로 '참신함'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미디어 속 부산 사투리의 모습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 일상 속 '츄데레'가 사용하는 부산 사투리

그중에서도 2012년 tvN에서 방영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은 보다 다양한 속성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일상의 언어로서 부산 사투리를 친근하게 만드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이 드라마는 1997년 부산을 배경으로 고등학교 2학년 성시원과 그녀의 소꿉친구 윤윤제, 그리고 이들의 친구(강준희, 도학찬, 모유정, 방성재)의 우정과 사랑 이야기를 그린 것이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을 이끌어가는 성시원, 윤윤제, 강준희, 도학찬, 모유정, 방성재는 1980년생이고 가장 메인이 되는 인물인 성시원은 심지어 여학생이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인물들이 모두 부산 사투리를 쓴다. 단, 서울에서 온 도학찬과 전라도 출신인 성시원의 아버지를 제외하고(이 드라마에서 아버지의 언어는 전라도



드라마 <응답하라 1997> 포스터

사투리이다). 이들이 쓰는 부산 사투리는 우리가 집이나 학교, 직장에서 가족, 친구, 부모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였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7> 속 부산 사투리의 이미지는 메인 주인공인 성시원과 윤윤제의 캐릭터와 연결되어 있다. 매사 거침없고 뜨거운 성시원이 사용하는 부산 사투리는 군더더기가 없고 솔직한 언어이다. 성시원은 딱 네 글자, '내 니 좋다'로 자신의 마음을 윤윤제에게 전한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모른 척 피할 수 없이 가슴에 꽂히는 말이다. 한편, 윤윤제의 부산 사투리는 부산 사투리가 지니는 남성성의 내용을 바꿔버렸다. 윤윤제가 사용하는 부산 사

투리는 결코 거칠고 험하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성시원처럼 직설적이지도 않다. 오히려 성시원보다 조심스럽지만 무심함 속에 애정이 뻗 말을 내뱉는다. 윤윤제의 부산 사투리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자면 '츄데레'의 언어이다. '츄데레'는 겉으로는 냉정하고 인정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일컫는 일본어 유래의 말이다. '츄데레'의 언어는 얼핏 보면 가부장적 아버지의 언어와 비슷해 보인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으로 친절하고 소통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러한 부산 사투리의 이미지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의 후속편으로 방송된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서도 이어진다. 다만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의 경우, 이야기가 여러 지방에서 서울에 상경한 학생들이 모여 사는 하숙집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다른 지방의 사투리와 비교 속에서 부산 사투리가 그려진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특히 이른바 서울말과의 비교 속에서 '츄데레'인 남성의 언어로서 부산 사투리의 특징이다.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의 윤윤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상냥하고 부드러운 서울말과 달리 부산 사투리는 무뚝뚝하고 무미건조하다. 문제는 언행 불일치이다. 무뚝뚝하고 무미건조한 부산 사투리



와 함께 또는 그 뒤를 따르는 행동은 애정이 어려 있어 ‘츄테레’가 된다. 이는 부산 사투리가 정의하는 남성성의 변화이다.

### 이국적인(!) 부산 사투리

드라마 <응답하라 1997>이 쏘아 올린 공은 영화와 드라마를 넘어 미디어의 보다 다양한 장르에서 부산 사투리의 크고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매스미디어에서 영화와 드라마를 제외하고 또 부산 사투리를 찾아볼 수 있었던 것은 가요였다. 1977년 발매된 최백호의 <그자?>의 가사를 일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봄날이 오면은 뭐하노 그자? /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꽃잎이 피면은 뭐하노 그자? /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래도 우리 맘이 하나가 되어 / 암만 날이 가도 변하지 않으면  
조금은 외로워도 괜찮다 그자?

제목으로도 사용된 ‘그자?’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동의 를 구하고 감정의 교감을 느끼고자 하는 화자의 마음을 가

득 담고 있다. 이 노래는 ‘그자?’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애뜻한 감정을 자아내었다. 하지만 ‘그자?’는 어디까지나 세련됨과는 거리가 멀다. 구수하고 향토적인 부산 사투리이다.

한편 가요가 풀어내는 구수하고 향토적인 부산 사투리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도 2000년대 들어서이다. 영화에 <친구>가 있다면 가요에는 <와 그라노>가 있다. 2002년 강산애가 부른 <와 그라노>의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와 그라노 / 니 또 와그라노 / 와 그라노 / 위우와  
아우와 그래쌌노 / 뭐라 캐 쫘노 / 뭐라 캐 쫘노 / 니  
니 와그라노 / 우짜라꾸 이허 웃네 / 우짜라고 / 웃네네네  
네는 어찌라 날이꼬 / 우짤라고 웃니 / 우짤라꼬 그러라노  
니 단디해라 / 마 고마해라 / 니 고마해라 니

부산 사람들이 들으면 참으로 일상적인 말의 연속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멜로디와 어우러져 얼핏 들으면 남미나 아프리카의 민속 음악처럼 들린다. 이 노래는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밀도가 높은 부산 사투리로만 만들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모르게 이국적인 정취와 함께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치 된장과 치



즈, 아니면 고추장과 생크림을 섞은 듯한.

그리고 2013년 발매된 장미여관의 <봉숙이>는 이러한 된장과 치즈, 고추장과 생크림의 조합이 얼마나 진화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

못 드간다 / 못 간단 말이다 / 이 술 우짜고 / 집에 간단 말이고  
못 드간다 / 못 간단 말이다 / 묵고 가든지 / 니가 내고 가든지  
야 봉숙아 / 택시는 말라 잡을라고 / 오빠 술 다 깨면 / 집에다 태아줄게

<봉숙이>는 브라질의 대중음악인 보사노바풍의 멜로디를 가진 노래로 보사노바를 입은 부산 사투리는 흡사 스페인어처럼 들린다. 가사 자체를 보면 꽤나 노골적인 내용인데 스페인어 같은 부산 사투리가 중화시키는 느낌이 들 정도이다. 가요 속 부산 사투리는 더 이상 구수하고 향토적이지 않다. 그것은 다양한 음악 장르와 콜라보 하면서 이국적인 색채를 더하고 요즘 말로 하자면 ‘힙해지며’ 진화하고 있다. 이 세상의 ‘힙함’을 추구하는 랩에까지 쓰이고 있으니 말이다. 아래는 2013년 발매된 사이먼 도미닉의 <에헤이>의 일부이다.

있다가이가 내 있다가이가 마 / 있다가이가 낭만이 있다가이가 사랑이  
있다가이가 내 있다가이가 마 /  
올끼다가이가 해뜰날 갈끼다가이가 우쨌든간에  
있다가이가 내 있다가이가 마 /  
있다가이가 강약이 있다가이가 한방이 있다가이가 내 있다가이가 마 /  
올끼다가이가 해뜰날 갈끼다가이가 우쨌든간에

## OTT 그리고 부산 사투리의 미래

이처럼 최근 20여 년간 미디어 속 부산 사투리의 모습은 크게 바뀌었다. 다양한 화자의 부산 사투리가 보다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등장하게 되었으며, 이는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와 함께 진행되었다. 그리고 2022년 현재 미디어 플랫폼은 단순한 변화를 넘어서 근본적인 진화와 마주하고 있다. 그렇다면 미디어 플랫폼의 빅뱅과 함께 미디어 속 부산 사투리는 어떻게 변화할까?

주목해야 할 것은 OTT(Over The Top)의 등장이다. OTT는 개방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영화, 드라마 서비스를 뜻하며, 넷플릭스(NETFLIX), 애플 티비(Apple TV+), 웨이브(Wavve), 티빙(TVING) 등이 대표적인 플랫폼이다.



드라마 <파친코> 포스터

OTT는 말 그대로 '톱(셋톱박스)을 넘어서'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PC,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다. TV 앞에 앉아야만 드라마나 영화를 볼 수 있는 시대는 끝난 것이다. OTT 콘텐츠는 생산과 소비 두 측면 모두에서 초국경적(Trans-border)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생산자는 글로벌화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나라에 서비스를 수출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이를 실시간으로 즐길 수 있다. 그리고 미디어 속 부산 사투리는 이 OTT를 만남으로써 전 세계로 발신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22년 3월 애플 티비를 통해 방영된 드라마 <파친코>이다. 드라마 <파친코>는 재미교포

작가 이민진의 동명 소설이 원작으로 일제강점기 대한협을 건너 일본으로 이주한 조선인의 역사와 삶을 4세대에 걸쳐 다룬다.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선자라는 여성인데 한 남성과의 비범한 만남이 씨앗이 되어 결국 일본으로 이주를 하고 굴곡진 삶을 산다. 부산 영도에서 나고 자란 설정인 선자를 비롯하여 극의 초반부에서는 부산 사투리 화자가 메인을 이룬다. 예를 들면 어린 선자와 선자의 아버지가 나누는 다음과 같은 대화이다.

어린 선자: 아까 전에 시장서 본 그 아재, 뭘 잘못했어?

선자 아버지: 모르제, 요즘은 있제, 죄인지 아인지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세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드라마 <파친코> 속 부산 사투리는 OTT를 타고 전 세계 100여 개 나라로 송출되었다. 2000년대 들어 미디어 속 부산 사투리의 모습이 아무리 다양해졌다 한들 그것은 어디까지나 국내에서의 변화였다. 하지만 이제는 부산 사투리의 발신 범위가 자체가 국경을 넘게 되었으며, 그러한 변화와 마주하면서 미디어 속 부산 사투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이다. 무엇보다 이제는 부산 사투리를

콘텐츠화하는 주체가 국내의 생산자라는 보장이 없다. 드라마 <파친코>는 엄연히 미국 드라마이고 어쩌면 앞으로는 영국에서 만든 드라마, 인도에서 만든 드라마에 부산 사투리가 쓰이고 OTT를 통해 발신될지 모른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무엇보다 다양한 용례 등을 축적한 부산 사투리의 DB가 중요할 것이며 그 작업이 국내, 특히 부산에서 이루어져야 함은 분명하다.

한편, OTT는 콘텐츠의 다양성을 크게 높인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 그것은 케이블 방송의 등장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일 것이며, 물론 부산 사투리가 표현되는 모습도 그러할 것이다. 드라마 <파친코>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선자의 부산 사투리는 여성 화자의 부산 사투리를 조금 새롭게 보여준다. 앞에서도 설명했다. 미디어 속 부산 사투리는 오랫동안 남성 중심적이었고, 때때로 등장하는 여성의 부산 사투리는 큰 목소리의 억척스러움으로 대변되기에 십상이었다. 물론 드라마 <응답하라 1997>처럼 1980년대생 성시원의등장이 있었지만 그래도 여시장에서 일하는 중년 아주머니의 부산 사투리가 전형적이었다.

그런데 선자의 부산 사투리는 조금 다르다. 그것은 결코 언성을 높이는 일이 없으며 다음의 대사와 같이 오히

려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과 강인함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는 느낌을 준다.

노년의 선자가 손자 솔로몬에게

: 말 안 해도 내 다 안다. 나는 평생 지겹게 그런 사람들 봐가 와가, 냄새만 맡아도 안데이.

선자가 형님 경희에게

: 무서버도 같이 무서버하십시오. 그라모 힘이 나지 않겠십니까.

물론 표면의 억척스러움과 내면의 단단함, 강인함은 결국 강한 생명력이라는 점에서 비슷할지도 모르며 어쩌면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미디어 속 여성의 부산 사투리 또한 전형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강한 생명력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 역시 인지해야 할 사실이며, 미디어 플랫폼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 보다 다채로운 부산 사투리를 구현해 가려는 시도가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부산시민의 마음을 전하는 방송 '자갈치 아지매'

부산의 유명한 관광지인 자갈치시장은 '자갈마당'에서 널빤지 좌대에 생선을 올려놓고 팔았다고 해서 '자갈'과 '생선'을 나타내는 '치'가 합쳐져 탄생한 공간이다. 또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 사용되는 구수한 부산 아지매의 말, 오롯이 부산 사람들의 애환을 대변하는 사투리는 무형문화재인 것이다. 이렇게 부산의 상징인 자갈치시장 그리고 그 안에서 치열하게 일하시는 아지매의 콘셉트, 이 둘이 합쳐져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을 탄생시켰다.



부산MBC '자갈치 아지매' ©자갈치 아지매 홈페이지

부산 MBC 라디오의 '안녕하십니까, 자갈치 아지매입니다'로 시작하는 김민부의 <자갈치 아지매>는 1964년 6월 7일 첫 방송을 시작하여 2022년 현재 대한민국 최장수 시사만평프로그램 기록되고 있다. 여자 성우가 사투리를 쓰는 자갈치 아지매로 등장하여 내레이션하는 형식이므로, 초기에는 강하게 어필하였고 파격적 콘셉트를 가진 가십성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모았다. 유신 말기 1년 5개월간 방송이 일시 중단된 것을 제외한다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장수 라디오 프로그램이다.

모든 방송이 원칙적으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방송 규범에서 벗어나 방송 용어로 적합하지 않은 부산 특유의 사투리를 사용함으로써 지역 정서와 문화를 담아내고 동시에 청취자로 하여금 지역 주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데 공헌하였다.

<자갈치 아지매>는 일반 라디오 프로그램이 아니라 푸근하고 친근하며 우리 가까이에 언제나 존재하는 서민적인 목소리로 부산 시민의 마음을 전하는 장수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사실 상업성 방송이라기보다는 부산시민의 가슴을 때로는 화끈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감싸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상업성이 없거나 광고가 붙지 않으면 폐지되던 방송국의 상황 속에서도 <자갈치 아

지매> 프로그램은 굳건히 건재하였고,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방송협회가 주최하는 시상식에서 한국방송대상 라디오 부문 우수 작품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물질만능주의의 파도 속에서도 이렇게 부산시민의 마음을 대변하는 방송은 충분히 존재할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 사투리의 효과

표준어화의 거센 물결로 인해 지역 사투리가 사라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부 말들은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고 계속 남아 있다. 이처럼 사투리는 각 지역의 본딴말과 섞이면서 변화하게 된다. 표준어의 전파를 가로막는 지형지물이 존재하지만 이러한 장애물이 오히려 사투리 전파의 새로운 존재 양상을 끌어내기도 한다. 의사소통에 있어서 지역 간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된다. ‘사투리’는 이렇게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는 것 외에도 다양한 사투리만의 효과가 있다.

첫째, 사투리는 ‘속마음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는 효과가 있다. 오늘날에는 텔레비전 등의 보급으로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된 ‘표준어’도 있지만, ‘사투리 주류 사회’에서 ‘표준어’는 적절한 장면에서 사용하는 ‘형식적인 말’이 되기 쉽다. 즉 ‘형식적인 말은 공통어’이며, ‘속마음을 나타내는 말은

사투리’라는 도식이 성립된다. ‘사투리’를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은 그 사람의 ‘진심’을 엿볼 수 있는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표준어’ 속에 불쑥 투입되는 ‘사투리’가 지루한 일상을 깨부수는 감각을 주는 효과도 있다. 또 표준어로 말하기 어렵더라도 사투리라면 부드럽게 말해볼 수 있는 효과도 있다. 이는 혹시 거기서 의도된 의사전달에 실패하더라도 사투리만의 부드러운 농담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효과인 것이다. 물론 ‘사투리’가 이러한 효과를 가지게 된 배경에는 한국 사회에서 ‘사투리’의 가치 상승 또는 이미지 변화가 있으며, 동시에 기존에 ‘사투리’가 갖고 있었던 지역 아이덴티티의 긍정적 인식 변화에 기인한다고 본다. 특히 최근 높아지고 있는 ‘지역 존중’에 잘 부합되며, 자존감 상승, 지역 보호주의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 사투리의 미래

유네스코(UNESCO)는 세계 2,500개의 언어(사투리)가 소멸위기에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특히 심각한 수준의 500여 언어를 포함한 많은 수의 사투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소멸위기언어(消滅危機言語)란 사라질 위기에 놓인 말을 의미한다. 모든 원어민이 사라지면 사어(死語)가 된다. 어떤 말이 소멸위기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조건을 말한다.

- 현재 살아 있는 화자들의 수
- 그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
- 어린 세대 가운데 해당 언어를 학습하는 사람의 비율

앞서 설명한 것처럼 사투리의 미래가 꽃길만 걸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그렇다고 부산 사투리가 소멸위기 언어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지나친 주장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렇게 소멸위기언어가 된 원인은 사투리를 말하는 젊은 세대가 없다는 점과 젊은 화자는 있지만 해당 사투리가 후대에까지 계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산 사투리 역시 미래를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설상가상으로 사투리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 심어진 세대는 사투리로 자신의 자녀를 교육하지 않는다. 조부모 역시 손자들과 이야기할 때 사투리를 사용하지 않고 표준어를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후대에는 사투리를 접할 기회가 점점 사라질 것이다.

###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담고 있는 공간 부산, 그리고 사투리

이 책에서는 부산이라는 ‘장소성’과 근현대를 살아왔던 ‘시대성’을 접목해 부산의 사투리에 대해 살펴보았다. 어찌 보면 기억 속에 잠자고 있던 사투리 어휘를 끄집어내면서 그 시절 우리가 상상하고 추억했던 단면을 끼워 맞출 수 있었다. 우리는 시간이 흘러 직접 과거로 되돌아가지 못하지만,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한 부산의 사투리를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으로나마 부산의 치열하고 따뜻했던 삶의 흔적들을 찾아낼 수 있었다. 어떤 학자는 다음과 같이 부산을 설명하고 있다.

“부산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눈요기하며 즐기는 장소가 아니라, 험난한 역사의 풍랑을 극복해온 민초들의 삶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대항해 시대를 뚫어 나가는 등대이자 베이스캠프가 되었으면 한다.”

사실 우리의 일상은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마주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완전히 바뀌었다. 뉴노멀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실제로 가보고 싶지만 이제는 더욱 가기 힘든 여행지를 그리워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누구나가 동경하는 ‘부산’이 그렇다. 낭만으로만 가득 차 있지만, 대한민국의 희로애락 즉 슬픔과 기쁨의 근현대 역사가 고스란히 숨 쉬는 곳, 이곳 부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솔한 마음을 전하는 부산 사투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표준어의 물결 속에 점점 사라져가는 지방 사투리는 문화재급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부산 토박이보다 부산을 더 많이 알고 싶은 필진이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집필한 책이다.



## 부산 사투리에 기대어

우리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부산 사투리에 대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부산시민으로서 자존감을 높일 필요가 있다. 부산이라는 ‘장소성’, 그리고 다이내믹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부산 사투리에는 삶의 애환이 담겨있다. 이러한 사투리를 애써 외면하면서 소멸시켜 간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 사실 여태껏 부산 안에서 보는 사투리는 그저 촌스럽고 통명스럽고 부끄러운 말이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부산 사투리에 대한 가치는 미디어에서 먼저 알아봐 주고 외부의 시선에 의해서 탈바꿈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좀 더 부산 사투리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할 시기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문화재로서 보존 가치를 잘 알고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산을 엿볼 기회가 되는 것이다.

부산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산 사투리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이 책에서는 부산 사투리를 부산 출신이 아닌 외지인의 시선으로 한 발짝 떨어져 살펴보았다. 타자(他者)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부산 사투리는 너무나도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혼종의 바다 부산에서 숨 쉬고 있는 보석 같은 언어를 바다에서 건져 올릴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사투리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여태껏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사투리가 자기표현 수단으로서의 사투리와 액세서리로서의 사투리, 사투리 코스프레 등과 같이 새롭게 주목받으며 세상 밖으로 나와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환영받을 만하고 바람직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렇지만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사투리와 액세서리로서의 사투리는 엄연히 질이 다르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다. 사투리 상품, 사투리 간판 등은 벼락 인기몰이를 하거나 어른들의 상술로 만들어진 아이টে 불과하다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많다. 물론 만약 전국의 간판 속 언어 경관이 표준어로 통일되어 획일화되면 우리가 갖고 있던 풍부한 지역 언어문화의 소멸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속성과 결합한 지역 사투리의 관심과 깊은 애정이야말로 여유롭고 풍부한 지역 언어문화와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투리에 대한 관심도 환영받을 가치가 있다. 앞으로의 사투리 연구는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 사투리에 대해 삶이 점철되어있는 현장의 모습을 치밀하게 기록하고 더불어 사회적 요인을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시야를 가졌으면 한다. 이러한 부산 지역의 무형문화재 연구를 누군가 진행해야 한다면 부산연구원이 그 역할을 꼭 해주었으면 한다. 마지막으로 부산 사투리에 애정을 가진 타자(他者)의 입장에서 우리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부산 사투리를 정리해 보았다.

### <사투리를 통한 부산의 재발견>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도 지켜왔던 부산의 역사와 시대변화에 따른 부산 사투리를 재조명하였고, 다른 지역보다 일본과의 근접성, 편의성이 높아 일본 어원이 혼재된 부산 사투리도 예로 설명하였다. 다양한 경로로 유입된 주민들의 영향으로 특수한 부산 사투리의 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투리를 통해 다양성 넘치는 부산의 재발견을 할 수 있었다.



### <사투리를 통한 다양한 언어정책 제언 가능>

기성세대의 사투리 이미지와 MZ세대 간 사용하는 사투리의 언어적 현상과 차이점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부산식 표현들도 알게 되었다. 이를 통해 향후 공감할 수 있는 사투리를 통한 세대 간의 커뮤니케이션 갭을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산 사투리를 활용한 공생의 언어정책 제안도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 <사투리를 통해 문화콘텐츠 개발 및 지역상품 개발 가능>

부산발 사투리와 부산발 언어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 부흥에 앞장서기를 희망한다. 사투리와 언어경관을 살펴보았을 때 이미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좀 더 퀄리티가 높은 사투리 활용 제품이 개발되기를 희망한다. 국외 사투리를 활용한 유·무형 제품의 사례처럼 부산 사투리의 매력을 발신 가능한 형태로 완성되어 가길 희망한다.

### <사투리를 통한 인문학 부흥에 일조>

관심이 적은 인문학, 그 가운데에서 부산발 사투리 관심을 통해 정책 인문학 강화가 필요할 것이다. 결국 부산을 일으킬 수 있는 자산은 부산말 부산사투리인 것이다.

### <해양수도 부산의 자존감 회복>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흙냄새 나고 비린내 나는 부산의 모습을 표현하

는 사투리를 긍정적으로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부산시민의 추락한 자존감을 흥미로운 부산 사투리 연구를 통해 부산시민으로서 긍지 회복하는 날이 속히 오길 바라 본다.

특히 이 책은 기존 사투리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언어학적 입장에만 갇혀 있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읽는 독자가 부산 사투리가 더욱 견고히 보존되어야 할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히 집필한 보람이 있다.

참고문헌

---

신문기사

---

기타 사이트

---

## 참고문헌

강송희, 송지성, 「사투리를 활용한 소주 라벨디자인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1(3), 2015

국립국어원, 『지역 언어문화 상품 개발 보고서』, 2012

강정희, 「방언 변화와 방언 연구의 방향」, 『한국어학』 21, 2003

곽충구, 「국어 사전의 방언 올림말과 그 주석에 대한 검토」, 『국어교육』 93, 1997

김경아, 「서울 거주 방언 화자의 코드 선택 양상 - 20~30대 경상도 출신 방언 화자들 중 심으로 -」, 『언어사실과 관점』 39, 2016

김덕호, 「방언의 문화콘텐츠 산업화를 위한 연구 방법론 제언」, 『방언학』 18, 2013

김덕호, 「한일 방언 경관의 분석과 방언 태도의 상관성」, 『日本學』 40, 2015

김보경, 「표준어의 망상, 사투리의 망상」, 『당대비평』 26, 2004

김봉국, 「부산의 지역어와 언어 문화」, 『석당논총』 12 (50), 2011

김봉모, 「부산 동래 지역어의 특성」, 『한국문화연구』 4, 1997

김영선, 「부산방언의 음운론적 연구」, 『동남어문논집』 12, 2001

김영선, 「방언 자료의 언어학적 가치」, 『우리말연구』 18 (29), 2011

김영선, 「부산 방언 연구와 관련된 몇 문제」, 『배달말』 6 (50), 2012

김정대, 「경남방언 구획 문제를 다시 생각한다」, 『배달말』 51, 2012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부산학의 선구자들』, 2020

배혜진, 「부산 지역 대학생들의 어휘 표준어화와 언어 태도」, 『어문학』 (144), 2019

양민호, 「방언 연구가 나아갈 방향」, 『새국어생활』 26권 1호, 2016

양민호, 「오키나와 전투와 방언 논쟁에 관한 연구:차별과 갈등의 관점에서」, 『인문과학 연구논총』 42(4), 2021

양민호, 「일본어 놀이 어휘를 통해 살펴본 해역언어학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113, 2020

양민호, 「일본의 방언 연구 동향과 방법론에 관한 연구」, 『방언학』 (26), 2017

오새내, 「20세기 서울 지역어 형성의 사회언어학적 변인」, 『한국학연구』 21, 2004

유진아, 「부산의 장소성과 향토음식에 대한 인문학적 고찰」, 『지역과 문화』 6(4), 2019

이근열, 『부산 사투리의 이해』, 해성, 2015

이근열, 김인택 「부산 방언의 문화 콘텐츠론」, 『우리말연구』 29, 2011

이기갑, 「표준어와 방언의 오늘과 내일」, 『새국어생활』 27(1), 2017

이정민, 「한국어의 표준어 및 방언들 사이의 상호 접촉과 태도」, 『한글』 173·174, 1981

조수영, 「서울에 거주하는 지방 출신 대학생들의 서울말 사용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5 (1), 2017

정승철,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개정판)』 태학사, 2022

정승철, 『방언의 발견』 창비, 2018

최해군, 『釜山浦』 1·2·3권, 지평 1987

井上史雄, 『經濟言語学論考 - 言語·方言·敬語の値打ち -』, 明治書院, 2011

田中ゆかり, 「方言コスプレ」の時代, 岩波書店, 2012

小林隆編, 『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方言学』, ひつじ書房, 2018

## 신문기사

〈교수신문〉

“[학문후속세대의 시선] 인문학의 값은 얼마일까”(2011.5.23.)

〈국제신문〉

“동북아 바다, 인문학으로 향해하다 <34> 놀이문화 속 일제잔재”(2019.9.10.)

〈스포츠조선〉

“사직구장 '마!' 함성 실측해보니, 항공기 폭음 맞먹었다”(2012.7.9.)

〈중도일보〉

“오피니언 [편집국에서] 애린왕자”(2021.4.7.)

〈중앙일보〉

“당신의 사투리, 인공지능에 파세요”(2020.11.4.)

## 기타 사이트

국립국어원 : 지역어 종합 정보

보넛디 홈페이지 후기글

위키백과 : 한국어의 방언

티스토리 블로그 : “부산 사투리에 담긴 함축과 여운의 미학”(토마토 앱)

## 2022년도 부산학 연구총서 참여자

### 저자

양민호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교수  
최민경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교수

### 기획위원

김영일 신라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김용규 부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은영 부산일보 부국장  
김흥기 동명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박창희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차용범 前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명흠 前부산외국어대학교 일본어창의융합학부 교수  
오재환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선영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손헌일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김민경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 역음

이동현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가현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2022  
부 산 학  
기 획 중 서

# 사투리, 부산의 마음을 전하다

**발행일** 2022년 12월 26일  
**발행인** 신현석  
**저자** 양민호 최민경  
**발행처** (재)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제작** (주)호밀밭  
**ISBN** 979-11-6886-051-3 (93300)

## (재)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472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955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8, 9F 부산연구원  
T. 051)860-8869 F. 051)860-8688 <http://www.bdi.re.kr>

- 본서는 부산연구원(BDI) 부산학연구사업의 하나로 발간되었습니다.
- 본 내용은 부산학연구사업 공모 결과물로서 부산연구원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서에 사용된 이미지 자료는 기본적으로 모두 저작권 허락을 구하였습니다.  
단, 별도의 출처표기가 없는 이미지 자료는 저자의 직접 촬영 또는 소장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
-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